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6 卷

〈2001.7~2003.12〉

統 一 部
南北會談事務局

차 례

■ 2001年	3
■ 2002年	55
■ 2003年	223

2001 年

2001年 主要 提議・主張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7. 2</p> <p>런던 국제전략 문제연구소 (IISS) 강연</p>	<p style="text-align: center;">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한반도 문제해결 관련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관계는 엄격한 상호주의보다는 포괄적 상호 주의가 바람직하며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p>2001. 7. 9</p> <p>앤서니 기든스 영국 런던정치 경제대학총장 접견(청와대)</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북한-EU 국교 정상화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국가들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은 매우 잘된 것이며 우리는 이를 권고한 입장에서 환영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7. 4</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촉구</p> <p>○ 미국은 말로만 평화에 대해서 떠들 것이 아니라 범 죄적인 대조선 적대정책과 대아시아 지배야망부터 포기해야 함.</p>
<p>2001. 7. 8</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북미대화의 선차적 의제' 주장</p> <p>○ 조미협상에서 가장 긴질하고 현실성을 떠는 문제는 미국의 경수로 지연에 따르는 우리의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우리는 전력손실 문제를 조미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논의·해결할 것을 요구함.</p>
<p>2001. 7. 9</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 미군 철수 주장</p> <p>○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의 조선 정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군이 남조 선에 주둔해 있을 명분이 더 이상 없음.</p> <p>○ 미군은 우리의 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모든 무기들을 거두어 가지고 남조선 에서 즉시 물러가야 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7. 11</p> <p>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p>	<p>김대중 대통령, 화해·협력정책 지속 추진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p>2001. 7. 13</p> <p>김동신 국방부장 관 국회 국방위 원회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해상 경비전력 재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에 따라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제주해역 경비전력을 보강하는 등 그동안 연안 위주였던 해상 경비태세를 연안과 원해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군 전력을 조정·배치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7. 12</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연합기뢰전 훈련 비난</p> <p>○ 우리의 대규모 기뢰부설을 통한 항구봉쇄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벌인 이번 연합기뢰전 훈련은 명백히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임.</p>
<p>2001. 7. 21</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의 미국산 무기 도입 비난</p> <p>○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족말살의 살인무기를 끌어들이는데 눈이 어두워 돌아가는 남조선 군부계층에게 이성 있게 처신할 것을 경고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7. 27</p> <p>콜린파월 미 국 무부장관 접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북미 대화 적극 추진 권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서로 병행 발전해야 함. 이것은 한반도 평화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중요하고 이것을 바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임. ○ 지금까지 볼 때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 의지가 높다고 생각하므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권유함.
<p>2001. 7. 31</p> <p>외교통상부</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외무장관 회담(7.27)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은 우리측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음. ○ 미국측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 양측은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7. 24</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외무성 대변인, 정전협정 체결 48돌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공고한 평화상태에로 전환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통하여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종식되어야 함.
<p>2001. 7. 24</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방문계획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가까운 시기에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게 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3</p> <p>미국 상하원 외교·군사·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미국의 대미 특사 문제 관련 의견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교착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을 것임.
<p>2001. 8. 5</p> <p>국방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복송 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 철원군에서 표류 중 구조된 이승훈 하사를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및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5조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으로 송환할 계획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1</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간 최우선 논의 사항은 전력손실 보장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제안인 핵, 미사일 및 상용무력 축감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수로 제공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보상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됨.
<p>2001. 8. 4</p> <p>북·러 정상회담(모스크바)</p>	<p style="text-align: center;">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8.4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 선언 주요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통일문제의 자주적·평화적 해결 및 외부 방해 불허용, 러시아는 향후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건설적·책임적 역할 수행 용의를 표명 ○ 북한은 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 러시아는 이에 대해 이해 표명 등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7</p> <p>청와대 정례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박준영 청와대 대변인,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 협의사항임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감축과 관련한 언급을 한 후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어떠한 입장인지, 근본적인 변화인지 전술적인 변화인지 주시해야 함. ○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이 결정할 문제는 아님.
<p>2001. 8. 10</p> <p>서영훈 「한적」 총재 대북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확정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 ○ 하루라도 빨리 혈육들을 만나야 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9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1천 8백명에 대하여 그 가족과의 상봉 또는 생사여부 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의 대화도 조기에 재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쌍방 적십자인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8</p> <p>조선아·태평화위 성명</p>	<p>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대미 비난</p> <p><성명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미행정부는 우리가 관광대가를 미사일 개발에 이용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니아를 벌였음. ○ 이는 미국이야말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협력사업도 우리민족의 이익과 염원에 맞게 진척시켜 나가는데 기본장애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금강산관광사업을 집요하게 방해해 나선다면 그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15</p> <p>광복절 경축사</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촉구</p> <p>○ 김대중 대통령은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햇볕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위해 양측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18</p> <p>당중앙위·당군사위·국방위원회 공동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김정일 위원장 방러 종료 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식 방문을 마치고 8.18 귀국하였음.
<p>2001. 8. 22</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외무성 대변인, 북미 대화 재개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6.18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그동안 여러차례 있는 뉴욕접촉을 통해 조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백히 밝혀왔고 대화제의에 대한 대답도 이미 다 주었음. ○ 우리를 압살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의제들은 절대로 접수할 수 없으며 미국측이 이를 철회하기 전에는 마주 앉을 수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8. 24</p> <p>통일·외교·안 보분야 장관 간 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급진적 통일지상주의 경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에 대한 냉전적 사고도 급진적 통일지상주의도 경계해야 하며, 최근 남북관계가 일시적 정체를 맞고 있지만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p>2001. 8. 31</p> <p>외교통상부</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정책그룹(TGOC)회의 개최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동경에서 한·미·일 3국 대표단은 현 대북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7 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강택민 중국 주석 북한 공식 방문 예정 보도</p> <p>○ 김정일 위원장 초청으로 강택민 중국 주석이 9.3~9.5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p>
<p>2001. 8. 29 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미일의 '군사적 일체화' 중단 촉구</p> <p>○ 미국과 일본은 지역정세를 엄중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군사적 일체화 책동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2</p>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 북측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 북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의해 온 데 대해 환영함. ○ 정부는 앞으로 북측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
<p>2001. 9. 3</p> <p>제38회 방송의 날 리셉션</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약속 준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함.
<p>2001. 9. 6</p> <p>정세현 남북장관 급회담 수석대표 대북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함. ○ 우리측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9.15~18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2</p> <p>림동욱 조평통 부위원장 대남 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음. ○ 우리측은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하여 6.15 북남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함.
<p>2001. 9. 6</p> <p>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 장 대남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9.15~18 서울에서 제5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함.
<p>2001. 9. 6</p> <p>외무성 대변인 답화</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 미군 철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13</p> <p>판문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대표단 : 홍순영 통일부 장관(수석대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 북측 대표단 : 김령성 내각 책임참사(단장), 조성발 내각 사무국 참사,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허수림 민족경제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처장, 김만길 문화성 국장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12</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테러 반대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것으로 테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음.
<p>2001. 9. 13</p> <p>조평통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계 발전은 남측의 자주적 입장 여부가 관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남측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얼마나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음.
<p>2001. 9. 13</p> <p>관문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표단 명단 : 좌 동
<p>2001. 9. 14</p> <p>김영대 조선사회 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 로켓 발사 시험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로켓 발사시험까지 한 이상 우리의 위성발사 중지와 관련한 종래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15~ 18</p> <p>제5차 남북장관 급회담(서울)</p>	<p>당국간 대화·협력 및 민간차원의 접촉·왕래·협력사업 지원 방안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남북간 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분야별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간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협 력사업을 적극 지원 ○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10.16~18)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곧 착수,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회담 개최 ○ 육로 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10.4) ○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의 빠른 시일내 발효 ○ 동해 공동어로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접촉 개최 ○ 태권도 시범단(10월 북측 시범단, 11월 남측 시범 단) 교환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0.28~31)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15~18</p> <p>제5차 남북장관 급회담(서울)</p>	<p>당국간 대화·협력 및 민간차원의 접촉·왕래·협력사업 지원 방안 등 협의</p> <p>○ 북측은 미이행 과제를 실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자면서 당국간 대화·협력진행과 함께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공동의 이익 및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17 청와대</p> <p>2001. 9. 20 한나라당 대북 쌀지원 촉구 성명</p> <p>2001. 9. 21 「한적」,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일정 관련 대북통지문</p> <p>2001. 9. 22 「한적」,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일정 수정 제의</p>	<p>김대중 대통령,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면담</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대북 쌀지원 촉구</p> <p>○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풀어주기 위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약 200만석의 쌀을 북한 동포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일정</p> <p>○ 방문 후보자 200명 명단은 9.28, 방문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10.8, 지원인원·취재기자·방문단 최종명단은 10.11 교환할 것을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일정 수정</p> <p>○ 생사확인 의뢰자 명단 교환은 9.26, 생사·주소확인 결과 회보서는 10.8, 방문단 100명 최종 명단 교환은 10.10 교환할 것을 제의</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20</p> <p>「북적」중앙위원회 대남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통보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흠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교환하기로 한다는데 합의 ○ 우리는 귀측으로부터 생사·주소확인 회보를 받고 상봉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250여명의 인원들 가운데서 100명을 선정하려고 함. ○ 그러므로 평양에 올 귀측 방문단 후보자 200명 명단을 조속히 넘겨주기 바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24</p> <p>김하중 외교안보 수석</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 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개최(9.23)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고와 관련한 대미 지원 조치로 △이동외과 수준의 의료지원단 파견 △원활한 협조를 위한 연락장교단 파견 △반테러 국제연대에 적극 참여 △미국과의 테러 정보 협조 등을 결정하였음.
<p>2001. 10. 5</p> <p>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 (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활성화방안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송현리와 북측 고성간 도로를 연결하되 '01년 중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우선 육로관광 실시 ○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만큼 사업자간 협의·추진구도 유지 <p>※ 10월19일부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협의키로 하고 합의문 없이 회의 종결</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9. 28</p> <p>조선반핵평화위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의 로켓 발사시험 비난</p> <p>○ 이번 발사시험은 일단 사태가 조성되면 단번에 세계 일류급의 군사력과 핵무기로 아시아 인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p>
<p>2001. 10. 5</p> <p>제1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 (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 협의</p> <p>○ 단장 : 김택룡(내각사무국 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해로를 이용한 기존의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해로관광을 정상화하여 당장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우선시</p> <p>○ 현대-아태간 기합의사항의 이행을 당국차원에서 보장해 줄 것을 주장</p> <p>※ 10월 19일부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협의키로 하고 합의문 없이 회의 종결</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6</p> <p>김정덕 남북 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제의</p> <p>○ 지난 2월 쌍방의 군사실무회담 대표들이 이미 합의한 남북철도·도로연결 구역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의 서명·발표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10.12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과 10.15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2001. 10. 8</p> <p>김대중 대통령 특별담화문</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지지</p> <p>○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협력할 것임.</p>
<p>2001. 10. 12</p> <p>홍순영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 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 촉구</p> <p>○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되어 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명함.</p> <p>○ 우리측의 경제조치들은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임.</p> <p>○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남북관계가 원활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9</p> <p>유영철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단장 대 남전통문</p>	<p>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검토후 통보'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10.12, 10.5 갖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검토 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남측에 전달
<p>2001. 10. 12</p> <p>조평통 대변인 담화</p>	<p>이산가족방문단·태권도 시범단 연기 및 모든 당국자 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에 조성된 사태(9.11테러 관련 '비상경제태세')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태권도 시범단 서울 파견을 당부간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10월중 개최예정인 제6차 북남상급회담, 경추위 제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북남당국간 회담 개최장소는 금강산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12</p>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남북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 시범단 방문 연기 발표’ 유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일방적으로 남북이산가족 방문단과 태권도 시범단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사항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임. ○ 특히 북측이 우리 내부 문제를 연기사유로 거론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정부는 북측이 이번 담화를 즉각 철회하고 장관급 회담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함.
<p>2001. 10. 12</p> <p>통일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이 10.12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대테러 경계태세 강화를 이유로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과 태권도 사업단 교환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유감임. ○ 이번에 우리 군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세계적인 테러위협 속에서 만약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외부의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12</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미사일 개발은 '자위적 행동'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자위적 행동이며,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사일을 만들지 않을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16</p> <p>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촉구 및 금강산 당국간 회담 · 제2차 경추위 회담 장소 제의</p> <p>○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의 일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을 설악산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2001. 10. 22</p> <p>홍순영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사항 미이행에 대한 유감표명 및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개최 제의</p> <p>○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p> <p>○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22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18</p> <p>김령성 남북 장 관 급 회 담 단장 대남전 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비상경계조치 시비 및 당국간 회담일정 수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은 6.15 북남 공동선언의 근본정신과 제5차 북남상급회담의 합의 사항을 위반한 행위임. ○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을 10. 25, 경추위 제2차 회의는 11.5, 제6차 상급회담은 10.28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p>2001. 10. 21</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811호</p>	<p style="text-align: center;">비상경계조치 비난 및 당국간 회담일자 수정제의(10.18 전통문) 수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10.18 우리측이 제안한 회담일정들을 받아들 이고 회담장에 나오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임.
<p>2001. 10. 2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대미관계 발전 용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과 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24</p> <p>홍순영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 대 북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장소 관련 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장관급회담의 중요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6차 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 6차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묘향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p>2001. 10. 27</p> <p>서영훈 「한적」 총재, 한적창립 96주년 축하</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회담 조속 개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회에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방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
<p>2001. 10. 31</p> <p>「남북교류협력법」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592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1년 6개월→3년) 및 교류절차 간소화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0. 23</p> <p>김령성 남북장 관급회담 단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재차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할 데 대한 우리측의 거듭되는 제안은 상급회담 자체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2회씩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귀측 지역 제주도에서 가졌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임. ○ 오늘 중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보내줄 것을 기대함.
<p>2001. 10. 25</p> <p>김령성 남북장 관급회담 단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거듭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북남상급회담 장소는 평양과 서울에서 각기 2회씩 하고 남측지역인 제주도에 한번 진행하였으므로 이번에 북측지역인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일반적으로 회담장소를 회담 주최측이 선정하면 상대방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 제6차 북남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금강산 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남측이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2</p> <p>홍순영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 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11.9~12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과 회담주최측이 장소를 정하면 이를 존중한다는 전제에 유의하여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함. ○ 회담날짜는 11.9~12간 할 것을 제의함.
<p>2003. 11. 6</p> <p>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결정 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9.11 미국 테러 이후 반테러 입장을 수차례 걸쳐 표명한 북한이 이번에 2개의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테러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2</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군 병력 이동 관련 비난</p> <p>○ 미국은 중동에로의 무력이동을 구실로 주한 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전투력을 계속 증강시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p>
<p>2001. 11. 2</p> <p>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반테러 국제협약들’에 가입 결정 발표</p> <p>○ 우리는 세계적으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음.</p> <p>○ 이와 함께 「인질반대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기로 하였음.</p>
<p>2001. 11. 3</p> <p>김령성 남북장 관급회담 단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우리측 제의에 동의</p> <p>○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1.9~12간 금강산지역에서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11.2)에 동의</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9~14</p> <p>제6차 남북장 관급회담(금 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국제정세 관련 의견교환 및 제5차 회담 합의사항 일정 재조정 문제 등 협의</p> <p>○ 우리측은 우리측의 경제태세를 문제삼은 북측의 조치 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반도가 국제적 긴장에 휘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을 강조</p> <p>※ 공동보도문 없이 종료</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7</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동등한 조건하 북미 대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미 두 나라 관계는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동등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음. ○ 조미대화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나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조미 쌍방이 다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p>2001. 11. 8</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보안법 철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 인민들을 이적분자로 몰아 탄압 처형하며 6.15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
<p>2001. 11. 9~14</p> <p>제6차 남북장관급회담(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국제정세 관련 의견교환 및 제5차 회담 합의사항 일정 재조정 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테러 전쟁과 관련한 우리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측이 취한 비상경계태세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 <p>※ 공동보도문 없이 종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19</p> <p>국회 통일외교 통상위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홍순영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소강국면 불가피 전망</p> <p>○ 북한 내부동향으로 볼 때 북측은 대남 강경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p>
<p>2001. 11. 22</p> <p>국방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백서 발간 주기 및 시기 조정</p> <p>○ '88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간해오던 국방백서를 금년부터 발간 주기는 격년으로, 발간 시기는 10월에서 5월로 조정함.</p>
<p>2001. 11. 23</p> <p>울산시청 업무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70년대부터 주장 언급</p> <p>○ 70년대부터 햇볕정책의 원리를 주장해 왔음. 햇볕정책은 평화공존, 남북교류협력 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해 10년, 20년후 통일하자는 것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14</p> <p>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관련 대남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상급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의 무성의와 특히 수석대표의 전횡과 불순한 태도에 있음. ○ 제6차 북남상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 수석대표의 대화가 부정적이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며 유감을 표시함.
<p>2001. 11. 15</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관련 대남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공동보도문의 최종합의를 고의적으로 뒤집고 결렬시켰음.
<p>2001. 11. 17</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관련 대남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사실과 다른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북남관계에 제동을 거는 행위임.
<p>2001. 11. 22</p> <p>「북적」중앙위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위한 환경 조성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무엇보다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조선에 조성된 살벌한 환경과 분위기부터 일신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26</p> <p>오경훈 한나라당 부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전략적 상호주의 원칙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일방적 베풀기, 선심성 퍼주기가 아닌 전략적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p>2001. 11. 27</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우리측 초소에 총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27 10:04경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 북방 7km 지점에 위치한 적 GP에서 아군 GP로 2~3발의 사격을 하여 아군 GP에서는 경고방송과 함께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음. ○ 적 사격중 1발은 아군 GP 병커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나머지는 GP 철책에 맞았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
<p>2001. 11. 29</p> <p>국방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총격사건 관련 진상 규명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11. 27 발생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측의 접촉제의를 즉각 응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1. 22</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비무장 지대 정세 격화 주장</p> <p>○ 남측 군대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p>
<p>2001. 11. 24</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부의 '주적' 규정 방침 관련 비난</p> <p>○ 남측 국방부가 내년에 발표하게 될 국방백서에 공화국 북반부를 '주적'이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남측 군사당국자들에게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1. 12. 1 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북한군의 휴전선 총격사건(11.27)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총격사태만큼은 결코 국방부 성명 한 장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함.
2001. 12. 1 보도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장성민 민주당 의원, 김정일 위원장 월드컵 개막식 초청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축구대회시 미·일·중·러 등 4강 정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막식 초청 및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테러 관련 장관회의 개최를 제안
2001. 12. 4 영국 총리공관	<p style="text-align: center;">한·영 정상회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대통령은 영국이 북한의 개방을 위해 계속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블레어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확인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1</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 남한내 미사일 요격레이더 배치 계획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남한에 미사일 요격레이더를 배치하려고 있는 것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게 미사일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임.
<p>2001. 12. 6</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 마사일 요격시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미국이 국가미사일 방위계획에 따른 미사일 요격시험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위계획 실현을 위한 요격실험을 5차례 감행하였음. ○ 국가미사일 방위체계 전개에 더욱 달라붙어 있는 미국의 이같은 책동은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7</p> <p>노르웨이 NRK TV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재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도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한반도 주변 4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봄.
<p>2001. 12. 11</p> <p>「한적」 총재 대 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연내에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12.14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협의하면 될 것임.
<p>2001. 12. 14~30</p> <p>북한 경수로사업 관계자 남한 방문</p>	<p style="text-align: center;">울진 원자력발전소 훈련시설 등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북한간 체결한 훈련의정서에 따라 참조 발전소인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훈련시설 시찰 등을 위해 북한 경수로 사업관계자 20명이 12.14~30 남한을 방문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11</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당국의 군사연습 비난</p> <p>○ 남측 당국이 비상경계조치, 각종 군사연습 실시 등으로 북남 대결과 반민족 반통일 책동을 벌임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치닫게 하고 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20</p>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전환적 조치' 요구 (12. 17, 조평통 담화) 관련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함. ○ 북측이 금번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평가하며 조속히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함. ○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로 현안문제를 풀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음.
<p>2001. 12. 21</p> <p>홍순영 통일 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식량지원방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은 언론기자회견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키로한 정부 방침을 설명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17</p> <p>조평통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의 비상경계조치 관련 '전환적 조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몇 달째 대화 일방을 심히 자극하는 비상경계조치를 지속시키고 있음. ○ 우리는 남측이 '전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6.15 공동선언을 조준하고 북남사이의 합의된 모든 일정들을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26</p> <p>군 주요지휘관 오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일방적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부담해야 될 부담은 엄청남. ○ 외국 투자가가 물려오는 것도 한국이 안전하기 때문임. 과거 '62~'97간 외국투자가 246억불이지만 지난 4년간 외국 투자는 501억불임. 이런 의미에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음.
<p>2001. 12. 28</p> <p>한국조폐공사</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조폐공사, 남북협력기금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조폐공사는 12,28(목)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새천년 통일기원 메달'을 판매해 조성된 수익금 1억1천 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 *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출연 총액은 21억 6,688만원
<p>2001. 12. 29</p> <p>서영훈 「한적」 총재, 북적 위원 장에게 연하장 발송</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간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남북 적십자간에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민족화합과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한층 더 발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1. 12. 26</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괴선박’에 대한 일본의 사격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2일 동중국 해역에 정선해 있던 국적 불명의 선박이 일본 순시선들의 무차별적인 기관포 사격으로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 자기 나라 수역도 아닌 수역까지 침범하여 감행한 일본의 범죄행위는 현대판 테러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침몰된 국적 불명의 선박이 북의 간첩선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여론까지 퍼뜨리고 있음.
<p>2001. 12. 29</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콘크리트 장벽 해체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제가 옹게 해결되자면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장벽과 같은 온갖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함. ○ 남측 당국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결과 불안, 전쟁의 상징이며 반통일 차단물인 콘크리트 장벽을 해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2002 年

2002年 主要 提議・主張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1</p> <p>신년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 의지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 관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화시키고 국민 여론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거나 쉬지 않고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음.
<p>2002. 1. 3</p> <p>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여야의원, 김정일 위원장 답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지키지 못한 서울 답방 약속을 올해에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
<p>2002. 1. 4</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비정 1척이 1.4 낮 12:15경 서해 연평도 서방 7.5마일 해상에서 NLL을 3마일 가량 넘어 30여분간 기동한 뒤 북으로 돌아갔음. ○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데 대해 우리 해군 고속정편대가 즉각 출동해 대응했으며, 북측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4</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적론 철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기 남측 일부 세력들이 들고 나온 주적론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 나갈 데 대한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임. ○ 동족을 '주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과적으로 진척될 수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9 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 기본통계」 발표</p> <p>○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기본통계」 자료를 통해, '89부터 '01.12 현재까지 북한방문 27,152명, 남한방문 1,534명, 주민접촉 15,312명 등 「남북한 인적왕래 및 접촉현황」을 발표</p>
<p>2002. 1. 10 국가안전보장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2002년도 안보정책 목표 설정</p> <p>○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2002년도 안보정책 목표를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간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8</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보안법 철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6.15 공동선언을 그 정신에 맞게 이행할 수 없음. ○ 시대와 민족의 요구대로 반통일적인 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폐해야 됨.
<p>2002. 1. 10</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냉전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대북 적대시 정책포기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은 말로만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화 분위기와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23</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학생·교사에 대한 관광경비 지원 ○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상환조건 완화 ○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p>2002. 1. 24</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북의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당국간 대화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언제라도 당국간 대화를 해 나갈 것임. ○ 남북대화는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함. ○ 남과 북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그동안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화해협력과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p>2002. 1. 24</p> <p>기자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 장관,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에는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며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14</p> <p>「북적」 위원장 대남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동해상 북한선박 송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월 9일 동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우리측 선원 3명이 러시아상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러시아상선측은 12일 진해항에서 귀측으로부터 그들을 최대한 빨리 무사히 귀환시킨다는 담보를 받고 귀측에 넘겨주었음. ○ 지금 우리측 선원들은 빨리 귀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는 귀측에서 우리측 선원들의 주장대로 그들을 지체없이 돌려 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p>2002. 1. 17</p> <p>박길연 유엔주 재 대사 대유엔 안보리에 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이 주한 미군 시정’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유엔의 깃발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25</p> <p>외교통상부</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p> <p>○ 한·미·일 3국은 회의에서 제네바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3국의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p>
<p>2002. 1. 28</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 발표</p> <p>○ 통일부는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 주민왕래 지원 2억5,300만원 ▲ 사회문화협력 지원 1억200만원 ▲ 교역 및 경험자금대출 46억720만원 ▲ 민족공동체 회복지원(무상) 188억7,630만원 ▲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유상) 319억2,390만원 등 총 5,544억2,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22</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북남·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p> <p>○ 정부, 정당,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3대 호소 (△6.15공동선언 철저한 고수 이행 △북남관계 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위협 요인 및 통일장애 요인 제거)와 3대 제의(△6.15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지정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지정 △5~8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지정)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소문 채택</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29</p> <p>「한적」총재 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남북은 제4차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해 두었던 만큼 당장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 ○ 나는 이같은 견지에서 민속명절인 설을 계기로 지난해 교환한 방식에 따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 ○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하면 될 것임.
<p>2002. 1. 30</p> <p>정세현 통일부 장관 취임사</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경험 활성화는 동북아 경험 활성화 기반’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평화의 가교 역할도 하지만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임.
<p>2002. 1. 31</p> <p>제91차 남북 교류협력추진 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 30</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대화 중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관계을 전진시키는 데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당국사이의 대화와 함께 모든 형태의 민간급 회담과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2. 1</p> <p>청와대 국무위원 오찬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대북지원 군사전용 주장 부인</p> <p>○ 일부에서 우리가 지원한 의약품, 옥수수, 쌀 등이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에 들어간 3억 9천만 달러가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 사회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임.</p>
<p>2002. 2. 5</p> <p>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북한과 미국에 대화 촉구</p> <p>○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햇볕정책을 흔들게 해서는 안되며 북한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대화과 북미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함.</p>
<p>2002. 2. 15</p> <p>각계 원로 초청 오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미북갈등 해결 4원칙 강조</p> <p>○ 김대통령은 각계 원로들과 오찬시 △확고한 한미동맹 △테러에 대한 반대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해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미북 갈등을 풀기 위한 4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2. 1</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무기 제조설’ 관련 대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우리가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란 여론을 유포하는 것은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임.
<p>2002. 2. 5</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부시 대통령 연두교서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침략 위협을 가해 나선 것은 조미관계에서 보기 드문 일로 선전포고나 다름없으며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님.
<p>2002. 2. 11</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그 무슨 위협요소로 터무니 없이 걸고 들어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대북 고립 압살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
<p>2002. 2. 13</p> <p>유엔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박길연 유엔 주제 북한 대사, 유엔사 해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모자를 쓴 미군으로 이뤄져 있고, 유엔은 유엔사령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한반도 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2. 18</p>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에 남북대화 호응 촉구</p> <p>○ 남북기본합의서 10주년을 계기로 북측이 조속히 남북 대화에 호응해옴으로써 남북간에 산적한 현안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p>
<p>2002. 2. 20</p> <p>한미 정상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북에 대화 호응 촉구</p> <p>○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에 대해 조속히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p>
<p>2002. 2. 20</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 평화자동차에 「남북협력사업 변경」 승인</p> <p>○ 통일부는 북한에 자동차 전시장 및 주유소 설치·운영을 위해 평화자동차가 제출한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p>
<p>2002. 2. 21</p> <p>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북에 대화촉구</p> <p>○ 한미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만큼 대화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초이며 북한이 남북대화 와 북미대화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2. 21</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다방면적 남북회담 필요 주장</p> <p>○ 북남최고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2. 28</p> <p>통일부 대변인</p>	<p>통일부,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수송계획 발표</p> <p>○ 우리 정부의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톤 지원 관련, 향후 수송일정 및 제1항차 수송선박의 출항 (2.28 중국 진황도항⇒ 3.1 북한 남포항) 사실을 발표</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2. 22</p> <p>외무성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시 대통령 아시아 순방중 발언 관련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체제에 대한 부시의 발언은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와의 대화 부정 선언이나 같음. ○ 미국이 우리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창하는 대화는 필요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3. 1</p> <p>3.1절 기념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은 평화공존과 교류' 언급</p> <p>○ 취임 이래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햇볕 정책은 굳건한 안보체제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 평화 공존하고 평화교류를 하자는 것임.</p>
<p>2002. 3. 4</p> <p>통일부 교류 협력국</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개정</p> <p>○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01.10.31)과 관련 ▲수시 방북신고서 신설 등에 따른 사항 등과 ▲ 방북안내교육 ▲ 남북교역관련사항 등을 보완한 「남북교류협력 시행규칙」을 개정·시행</p> <p>* 이는 현재 운용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집행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p>
<p>2002. 3. 13</p> <p>중국 공산당 부부장 면담</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 장관, 중국에 북측 설득 요청</p> <p>○ 정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 설득해줄 것을 요청, 이에 대해 왕자루이 부부장은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의 지속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3. 5</p> <p>조선중앙통신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제네바합의 파기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일방적, 적대적인 태도와 입장으로 인해 제네바합의문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고 있음. ○ 미국이 합의를 전면백지화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임.
<p>2002. 3. 1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행정부의 핵공격 계획은 힘에 의한 세계제패를 위한 그 어떤 국제적 합의도 쌍무적 합의도 다 뒤집어 엮고 핵공격을 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합의를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3. 14</p> <p>제56기 해군사관학교 임관식</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통일후 미군 주둔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경제·외교분야는 물론 우리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최대의 맹방이며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우리 안보의 근간임. ○ 강대국들에 둘러 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필요함.
<p>2002. 3. 18</p> <p>IPU총회 연설 (모로코)</p>	<p style="text-align: center;">이만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이 남북대화과 북미대화에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함.
<p>2002. 3. 21</p> <p>제94차 남북 교류협력추진 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65세이상 이산가족, 학생, 교사와 통일교육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 경비 중 60%-70% 지원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3. 14</p> <p>조평통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연합 RSOI/FE '02연습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행정부 안에서 북침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우리는 그 어떤 조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p>2002. 3. 18</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합동군사훈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위험한 전쟁도발 책동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3. 25</p> <p>박선숙 청와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임동원 특보 4월 초 방북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대통령 특사로 4월 첫째주 중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임. ○ 이번 특사 방문이 정체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p>2002. 3. 28</p> <p>기자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임동원 특보, 4월 방북 목적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 다가올 지도 모르는 안보위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 당국자에게 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상호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방북 목적임. ○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미북관계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3. 25</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특사 평양방문 계획 발표</p> <p>○ 남측 특사가 4월초 평양을 방문하며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 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될 것임.</p>
<p>2002. 3. 27</p> <p>인민문화궁전</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개최</p> <p>○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보고, 2001년 예산 결산과 2002년 예산 승인 및 국토계획법을 채택</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1</p> <p>통일부 대변인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 특사 방북 관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특사는 대통령 전용기 3호기로 방북할 것이며 백화원초대소에 머물 예정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3</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KEDO와 협상 재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뉴욕에서 있는 2차례의 조미접촉에서 미국이 중단된 KEDO와의 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이를 신중히 검토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p>2002. 4. 4</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합의 미이행시 해당 조치 응당’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경수로제공을 대폭 지연시키고 중유납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올해분 중유가 제때에 납입되게 하는 것은 미국측의 엄연한 의무임. ○ 만약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우리의 해당 조치가 있게 될 것은 너무도 응당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2~6</p> <p>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 방 북</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정세 및 남북 현안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와 회담을 개최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보도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존중 및 긴장 조성 방지 ○ 남북관계 원상회복 ○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경의선 철도·도로 빨리 연결 ○ 경추위 제2차 회의 개최(5.7~10, 서울),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대책 토의를 위하여 경추위 산하 실무협의회 가동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회담 개최(6.11부터 금강산) ○ 5월중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재개 ○ 동포애,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 하에 상호협력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2~6</p> <p>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 방 북</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정세 및 남북 현안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보도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8~9</p> <p>일본 동경</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특사 방북결과에 따른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등 협의
<p>2002. 4. 11</p> <p>「한적」 총재 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절차 협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우리측 특사의 방문시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에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함. ○ 4월 12일 14시 판문점에서 쌍방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갖고 방문단 상봉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할 것을 제의
<p>2002. 4. 18</p> <p>제95차 남북교 류협력추진협 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비료지원 및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료 20만톤 지원비용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 관련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심의·의결
<p>2002. 4. 18</p> <p>평화를 위한 아 시아의회연합총 회 2차 본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이만섭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개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방북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이같은 뜻을 북한측 대표단장 김수학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게 전달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11</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대화 재개 환경 미성숙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조미회담은 필요하며 또 어느 때 가서든 조건이 마련되면 진행되게 될 것임. ○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화의 재개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대화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자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19</p> <p>「한적」 서영훈 총재</p>	<p style="text-align: center;">비료 20만톤 지원 대북 통보</p> <p>○ 장재언 위원장에게 비료 20만톤 지원 결정 및 전달절차 통보 - 4.25~6.2(25항차 예정)</p>
<p>2002. 4. 22</p> <p>국방부 대변인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북 유보입장 표명</p> <p>○ 4.19 군사정전위원회 라인을 통해 4.23 군사실무협의회를 개최, 경의선 연결공사 상반기 중 착공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유보입장을 표명했음.</p>
<p>2002. 4. 22</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경비정 서해 해상 NLL 침범</p> <p>○ 북한 경비정 2척이 4.22 17:05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10.6마일 해상에서 NLL을 침범, 남측 해상을 기동하다 북으로 돌아감.</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4. 30</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방미중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을 찾아가 북남관계의 진전이 마치 미국의 힘의 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발언한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임. ○ 남측 당국이 진실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3</p> <p>건교부장관 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금강산댐 수위조절 계획 통보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5.31 임남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지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방출 일정과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기 바람.
<p>2002. 5. 6</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경추위 제2차 회의」 조속한 개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합의된 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우리는 남북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제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음. ○ 북측도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특사방북시 합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1</p> <p>외무성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클린턴 미 전 대통령 평양 초청설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우리가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을 초청하였다 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을 초청한 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
<p>2002. 5. 6</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p>	<p style="text-align: center;">「경추위 제2차 회의」 무산 관련 성명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성홍의 행위는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 집고 우리 민족끼리 대화도 협력도 할 수 없게 훼방 을 놓는 심히 엄중한 도발로 됨. ○ 우리측은 남측당국이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나가려는 입장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 납득할 만한 조치 부터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오늘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써 북남경제협력조치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하고 있음. <p>*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4. 23 미국을 방문중인 최성홍장관이 “때로는 강공책이 북한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 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9</p> <p>2002 월드컵 대회조직위원장 명의 대북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2002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 북측 초청</p> <p>○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는 귀하를 오는 2002년 5월 31일 서울에서 거행되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개막식에 귀하(박명철체육위원장, 장웅 IOC위원)를 초청함.</p>
<p>2002. 5. 11~14</p> <p>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방북</p>	<p style="text-align: center;">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p> <p>○ 박근혜 의원은 북측 「민화협」 초청에 따라 「유럽-코리아재단」이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용순 비서와 회담을 개최</p> <p>○ 박 의원은 귀환 후 기자회견(5.14.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일 위원장 답방문제 언급 여부에 관한 기자질문에 대해 '6.15선언 때 약속한 것이니까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답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자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답변</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19~24</p> <p>경수로사업 관련 북한 시찰단 남한 방문</p>	<p style="text-align: center;">양양·김해공항 및 울진 원자력 발전소 등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사업과 항공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북한 시찰단 10명이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실어나르는 양양공항과 양양공항 기상악화시 이용되는 김해공항 및 울진 원자력 발전소 등을 시찰하기 위해 남한 방문(단장 : 안영환 원자력총국 기술처장)
<p>2002. 5. 24</p> <p>국방부 대변인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2002 국방백서」 발간 연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5월말 발간예정인 「2002 국방백서」의 발간을 ‘국민의 정부’ 국방업무 실적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문서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19</p> <p>이타르타스 통신 회견</p>	<p>백남순 외무상, 김정일 위원장 서울 방문 희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북남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하고 있음.
<p>2002. 5. 24</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비핵지대화 · 평화지대화 필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임의의 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음. ○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없애자면 이곳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핵무기들을 모두 철폐하고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하여야 함.
<p>2002. 5. 24</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테러에 관한 연례보고서」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1일 미 국무성은 「테러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 데서 우리를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음. ○ 미국이 제멋대로 만들어 발표한 「테러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사실상 논평할 가치조차 없음. ○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테러 모자를 씌우겠으면 씌우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26</p> <p>유엔군 사령부</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군사분계선 월경·복귀</p> <p>○ 북한군 3명이 5.26 15:45 비무장 지대 선전마을인 대성동 남서쪽 2km 지점 농경지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75m 정도 침범했으나 특이한 동향없이 북측으로 복귀했음.</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27</p> <p>조선중앙통신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테러에 관한 연례보고서」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무성은 21일 발표한 「테러에 관한 연례보고서」라는 데서 또다시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음. ○ 이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국제적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음. ○ 미국이 대화상대방인 우리에게 테러지원국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미국의 대화의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p>2002. 5. 28</p> <p>조평통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 후보의 6.15공동선언 2항 관련 발언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2일 이회창 후보는 관훈클럽이 조직한 대통령 선거 후보토론회라는 데서 6.15 공동선언의 두 번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음. ○ 공동선언의 두 번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반대하고 공존도 반대하며 결국은 6.15 공동선언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30</p> <p>「매일경제-KAIST 최고 지식경영자과정」 조찬 강연</p>	<p>정세현 통일부장관,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관련 언급</p> <p>○ 6.15 선언 2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며, 남북의 통일방안이 서로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한다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화해 협력과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는 것임.</p>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5. 28</p> <p>6.15 민족통일대 축전 북측준비 위 초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대표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올해에 진행할 여러 통일행사들을 협의확정하기 위한 실무접촉에 참가할 대표들을 6월 1일부터 금강산에 초청하는 바임.
<p>2002. 5. 31</p> <p>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댐 수위조절계획 사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장마철을 앞두고 언제공사 수위조절 계획에 따라 임남 언제의 물을 6월 3일부터 일정한 양을 뱉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 ○ 이번에 임남 언제의 물을 방출하는 문제는 언제의 견고성과와 관계없으며 우리의 사전통보조치는 어디까지나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7</p> <p>통일문제토론회 발제문</p>	<p>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6.15 공동선언 제2항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선언 2항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중요하다는 것에 남북이 인식을 함께 한 것임.
<p>2002. 6. 10</p> <p>금강산관광 당국 간회담 남북대표단</p>	<p>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회담 무산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대통령특사 방북시(4.5) 합의한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이 예정(6.11, 금강산)대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 ○ 「4.5 공동보도문」의 합의정신에 맞게 북측이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4</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한총련 의장 체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총련에 대한 태도문제는 공동선언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민족자주통일을 하자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를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임. ○ 남한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함.
<p>2002. 6. 7</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미 특사 평양방문 문제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측이 특사를 직접 평양에 보내어 대화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하여 지난 4월말 그에 동의를 주고 특사를 받아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였음. ○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프리차드의 방문문제를 놓고 취하고 있는 미국측의 태도는 그들의 대화재개제기에 대한 의심만을 증대시키고 있음. ○ 미국이 대화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 설 때만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11</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 경비정 서해 NLL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경 북 경비정 1척이 서해 소청도 동남방 5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0.5마일 남하했다가 20:15경 귀환하였음.
<p>2002. 6. 15</p> <p>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전략적 상호주의 적용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13</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적대정책 포기해야 북미대화 재개 진전 가능’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1일 미 국무장관 포웰은 우리에게 장거리 미사일 제거 및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 완전이행 등을 요구하였음.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화에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임. ○ 부시 행정부의 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조미사이의 대화기초가 다 없어진 조건에서 대화가 재개되어 진전하려면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부터 근본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15</p> <p>남 북 연 락 관 접 촉</p>	<p>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 관련 대북 서한 발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과 관련하여 북측 단장 김령성에게 서한을 보냄. <p style="text-align: center;">〈서한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구도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의 대장전임. ○ 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서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이제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되살려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하겠음. ○ 그러기 위해서는 「4.5 공동보도문」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함.
<p>2002. 6. 16</p> <p>통일부</p>	<p>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대다수(73.0%)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고 그 추진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64.5%)하였음. ○ 대북지원에 대해 국민의 2/3(66.1%)가 현재 수준 내지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15</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6.15민족통일대축전」 폐막 보도</p> <p>○ 폐막식에서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자주적 조국통일 △외세에 의한 전쟁 위협 및 통일장애 배격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 전개 등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 발표</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21</p> <p>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 회 조직위원 장 명의 대북 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도 알다시피 오는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부산에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게 됨. ○ 우리측이 이미 귀측에 공식초청장을 발송하였듯이 귀측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측은 이번 대회의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하고 대회기간 중 귀측 예술단의 방문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열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와 화해의 통일아시아드로 그 의미가 더욱 빛날 것으로 봄. ○ 우리는 귀측과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랍.
<p>2002. 6. 21</p> <p>국 가 유 공 자 초청 오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대화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17</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핵정책에 대한 대응 정당’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타격 목표로 지목한데 이어 얼마전 미 국방성이 우리나라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모의훈련을 진행하였음. ○ 미국이 핵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음.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29</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 09:54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방 14마일과 7마일 해상에서 각각 NLL 3마일과 1.8마일을 침범하여 아 고속정 편대가 출동, 대응하자 10:25경 북 경비정에서 사격을 해와 우리측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교전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후 10:46 북한 경비정이 퇴거할 때까지 산발적으로 교전이 계속되다가 10:50경 북한 경비정은 NLL을 북상하였음. ○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피격된 우리측 고속정 1척이 교전 종료후 예인중 침몰하였으며, 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으로 확인되었고 북측 경비정 1척도 화염발생과 함께 파손된 것으로 관측되었음.
<p>2002. 6. 29</p> <p>국가안전보장회의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건은 군사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군사정전위를 즉각 소집해 오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했음. ○ 북한 경비정의 무력도발과 관련,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성명을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표할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29</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책임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29일 남측 군이 서해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민군 해군경비함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을 감행했음. ○ 이에 대응하여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손실들이 있었음. ○ 이번 사건은 남측 군부의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29</p> <p>국 방 부 장 관 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 09:54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 퇴거를 요구하는 우리 해군 경비정에 대해 선제기습사격을 가해와 아측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 북한군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이러한 북한군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 행위의 중지를 거듭 촉구함.
<p>2002. 6. 29</p> <p>유엔사 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장성급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6.29 정전협정 위반사항(서해교전)을 협의하기 위해 쌍방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6. 29</p> <p>북한군 관문점 대표부 대유엔 사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측 장성급회담 제의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충돌사건은 당신측이 정전 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제멋대로 불법적인 북방한계선을 그어놓은데 그 원인이 있음. ○ 만약 회담을 하려면 북방한계선을 철회하기 위한 회담을 먼저 해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2</p> <p>방일 귀국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북한 재도발시 강력대응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9일 북한 함정이 우리 함정을 기습공격한 도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음. ○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임.
<p>2002. 7. 2</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NLL 침범시 작전지침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서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은 안함)로 대응한다는 작전지침을 발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1</p> <p>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에 보낸 북측 축구협회장 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축구대회 관련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귀하가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북과 남의 축구 교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동의 ○ 우리는 당면하게 박근혜 여사와 약속한 북남남자축구경기를 9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서울에서 진행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쌍방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의
<p>2002. 7. 2</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책임 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상의 충돌사건은 남측 군이 영해침범과 선제사격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의 대응은 자위적 조치임. ○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남관계에 쐐기를 치기 위해 만든 결과물이며, 제3자들은 사건의 근본원인인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에 주의를 돌려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6</p> <p>한나라당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대북응징 조치 촉구</p> <p>○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는 대화 제의에 응해서는 안되며 외교적, 경제적 응징수단을 단계적으로 행사해야 됨.</p>
<p>2002. 7. 7</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조사결과 발표</p> <p>○ 이번 서해교전은 북한의 치밀하게 계획되고 의도적인 선제공습에 의한 사건임.</p>
<p>2002. 7. 7</p> <p>해군작전사령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군함 북측 영해 침범 주장 반박</p> <p>○ 우리측 해군 전함 2척이 금일 10:30경 북측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임.</p>
<p>2002. 7. 8</p> <p>경기도</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공동으로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 방역 추진에 합의</p> <p>○ 경기도는 7.24-29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 추진을 위해 실무단 14명을 평양에 파견,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 공동방역에 합의</p> <p>○ 동 사업은 경기도가 약품을 지원하여 경기도와 황해도 접경지역에서 공동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것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3</p> <p>조평통 성명</p>	<p>7.4 남북공동선언 30주년 관련 대화·협력 노력 지속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공동선언은 통일 3대원칙을 밝힌 통일의 기본강령으로서 6.15 공동선언 발표로 그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음. ○ 우리는 7.4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북남 쌍방이 합의한 대로 대화와 협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
<p>2002. 7. 7</p> <p>인민군 해군 사령부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전투함선 북측 영해 침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해군은 오늘 10:30경 전투함선 2척을 강령군 구월봉 앞 우리측 영해에 불법침입시키는 도발행위를 하였음. ○ 지난 6.29 있었던 무력충돌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투함선들을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킨 것은 이 수역에서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임.
<p>2002. 7. 8</p> <p>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침몰 함선 이양작업 통보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이번(서해교전시)에 침몰한 함선을 인양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으나,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의 군사통제구역이므로 인양작업 과정에 예기치 않은 새로운 충돌을 미리 막자면 작업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과 장비 그리고 활동 수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인민군측에 통보하여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9</p> <p>해군 발표</p>	<p>침몰 고속정 인양 관련 북측의 사전통보 요구(7.8) 일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영해에 대해 북측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함. ○ 인양과정에서 북측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를 경우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
<p>2002. 7. 11</p> <p>정몽준 축구 협회장</p>	<p>남-북-중-일 4개국 참가 동북아축구 리그 창설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7.11 위안웨이민 중국 체육 총국장 겸 축구협회장을 만나 남북한과 중국, 일본 4개국이 참가하는 동북아축구 리그 창설을 제안 ○ 리그는 매년 7,8월 각국을 돌아가며 국가대표팀, 청소년 대표팀, 여자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추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10</p> <p>인민군 해군 사령부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전투함선 영해침범 주장</p> <p>○ 남조선 해군은 7.10 10:05경과 10:25경에 강령반도 등산곶과 구월봉 남쪽 우리측 영해에 두 척의 전투함선을 침입시켰음.</p>
<p>2002. 7. 10</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이준 국방부장관 취임사 비난</p> <p>○ 남측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사에서 지난 6.29 서해무장충돌사건을 거들면서 도발이니 강렬한 응징이니 하는 발언을 하였음.</p> <p>○ 서해사건은 남측 군부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것으로 도발자는 다른 누구를 걸고들 자격이 없음.</p> <p>○ 남측은 대화를 발전시키고 통일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로 나와야 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13</p> <p>한·일외무장관 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일, 대북대화 기조 유지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외무장관은 서해교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북한과 건설적 대화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
<p>2002. 7. 15</p> <p>청와대</p>	<p>김대중 대통령, 서해교전 관련 북의 납득할 만한 조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은 북한이 불법 도발한 것이며,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미북회담도 북측이 서해교전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때 열리게 될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16</p> <p>남측 민화협에 전달한 북측 민화협의 fax</p>	<p style="text-align: center;">8.15 민족공동행사 실무접촉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민화협은 8.15 공동행사 관련 남북간 접촉을 7.20-23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남북추진 본부 제의에 동의 ○ 이와 함께 북측 민화협은 행사계획에 대해 우선 서면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23</p> <p>8.15공동행사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한 8.15 공동행사 서울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7.20~23 평양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8.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북측 대표단은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100명 정도 구성되며 남북 직항로를 통해 8.14~17 서울을 방문할 예정 ○ 행사는 개막식과 함께 민족 단합대회, 예술공연, 미술 전시회, 사진전, 축하연회, 명승지 탐방 등으로 진행
<p>2002. 7. 25</p> <p>통일부 차관</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북측 유감표명 긍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한 것은 서해교전사태와 관련 사실상 사과의 의미를 갖는 것임. ○ 이번 북측의 제의를 계기로 형클어졌던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24</p> <p>조평통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정전협정 50주년 관련 유엔사령부 해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의 비법성을 가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어야 함. ○ 99년에 이어 서해상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전협정에도 없는 NLL을 철회하지 않은데 있음.
<p>2002. 7. 25</p> <p>김령성 남북 장 관 급 회 담 단장</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측은 서울에서 제7차 북남상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합의한 철도연결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8월초 금강산에서 북남상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가지는 것을 제의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26</p> <p>국회상임위 현안보고</p>	<p>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재개시 군사적 긴장완화 역점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가 재개되면 서해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것임.
<p>2002. 7. 29</p> <p>청와대 외교안보수석</p>	<p>서해교전 관련 '북의 유감표명은 미흡하나 회담은 추진' 방침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유감표명은 우리의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 외교관례상 유감은 사과와 뜻으로 통용돼 온데 비쳐 받아들이고 남북당국간 회담은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p>2002. 7. 30</p> <p>정세현 남북장관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8.2~4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대해 유의하며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우리측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전에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갖자는 북측 제의에 동의함. ○ 실무대표접촉을 8.2~4 금강산에서 할 것을 제의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7. 30</p> <p>김령성 남북 장 관 급 회 담 단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일정(8.2~4, 금강산) 동의</p> <p>○ 8.2~4간 실무대표접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에 동의함.</p>
<p>2002. 7. 31</p> <p>장웅 IOC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체육교류문제 협의 제의</p> <p>○ 김운용 IOC 위원에게 8.20일경 국제경기연맹총연합 (GAISF)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만나 남북체육 관련 현안 협의를 할 것을 제의</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p> <p>2002 민족공동 행사추진본부</p>	<p style="text-align: center;">8.15 민족공동행사 관련 제2차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8.15 민족공동행사관련 2차 실무접촉을 8.5~7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 ○ 서울에서 열리는 민족공동행사 남북참가단 규모와 구성, 행사장소 등을 확정하고 9월초와 중순에 각각 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청년 및 여성통일대회 문제 논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p> <p>조평통</p>	<p style="text-align: center;">NLL 관련 「조평통 서기국 백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평통 서기국 백서」를 발표하여 서해교전(6.29)책임을 미국과 남측에 전가하고 NLL이 서해해상경계선이 아니라면서 서해해상경계선 확정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합의해야 한다고 주장
<p>2003. 8. 2</p> <p>조선중앙통신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NLL 무력충돌 관련 전화통지문 내용에 대한 남측의 비방중상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전에 우리는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이 근본요인으로 된 이번 무력충돌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북남상급회담의 재개를 강조하였음. ○ 우리의 이 입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남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진지한 태도의 반영임. ○ 일부 불순세력들이 우리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북남사이의 화해 협력을 차단시키며 제2, 제3의 충돌사건을 야기시키려는 범죄적시도임.
<p>2002. 8. 2</p> <p>이찬복 인민군 관 문점 대표부 대표 대유엔사 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판문점 장성급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상 긴장완화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해 8.6 군정위 회의실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2~4</p> <p>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입장 교환 및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의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6.29 서해사태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우리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또한 이번 실무대표접촉이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8.12~14 서울 개최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 2차회의 개최문제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문제 △군사당국자회담 재개문제 △4.5 공동보도문 이행일정 확정문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문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실현 문제 등을 논의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북측 참가 ○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민족통일대회」 및 9월 축구경기 적극 지원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2~4</p> <p>남북장관급회 담 실무대표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관련 입장 교환 및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의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서해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제7차 남북장관급회의를 8.20경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4.5 공동보도문 이행 등을 의제로 할 것을 제의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2. 8. 3 한나라당	<p style="text-align: center;">「조평통 백서」(8.1) 관련 논평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L은 50년간 지켜와 관습법으로 성립한 분명한 군사분계선임. ○ 북한은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합의한 바 있음.
2002. 8. 5 청와대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제7차 장관급회담시 기존합의 실천조치 마련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차 장관급회담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
2002. 8. 5 해군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시 침몰 고속정 인양작전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은 다목적 구조함 청해진함과 해상 크프인 등 군용장비와 해난 구조대 잠수요원 60여명을 고속정 침몰해역 인근에 투입 인양작전을 시작
2002. 8. 6 유엔사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북한군, 제13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 서해교전 및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 협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3</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서해교전 유감표명은 진지한 태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은 북남관계를 회복시키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의 반영이며 추호도 의심이 없음. ○ 불순세력들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 미흡하다 등 왜곡하고 있는 것은 선의와 아량에 대한 모독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7</p> <p>8.15 민족공동 행사 관련 제2 차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8.15 민족공동행사 일정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8.15 민족통일대회 ○ 기간 : 8.15~16 ○ 북측 인원 : 100~110명 ○ 장소 : 올림픽 제2경기장, 조달청 문화관, COEX 오라토리움 ○ 내용 : 개·폐막식, 민족단합대회, 미술·사진 전시회, 독도학술토론회, 부문단체별 모임
<p>2002. 8. 9</p> <p>판문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관련 우리측 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 한데 대하여 환영함. ○ 귀측의 참가종목과 선수단 규모, 백두산 성화채화, 봉송문제, 문화예술단 참가문제, 편의보장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원만한 대회 준비를 위해 빠른 시간내에 확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쌍방의 체육 관계자들이 8월 17일을 전후하여 실무접촉 갖기를 희망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7</p> <p>중앙방송</p>	<p>‘장성급회담에서 고속정 인양문제 등 협의’ 등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은 유엔사측이 지난 서해 해상 사건때 침몰된 남한 군함선 인양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알려온 데 대해 긍정평가했다고 주장
<p>2002. 8. 8</p> <p>남측 민화협에 전달한 북측 민화협의 FAX</p>	<p style="text-align: center;">8.15 민족공동행사 실무접촉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민화협은 8.15 공동행사 관련 남북간 접촉을 7.20~23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남북측 추진본부 제의에 동의 ○ 이와 함께 북측 민화협은 행사계획에 대해 우선 서면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
<p>2002. 8. 9</p> <p>박명철 NOC 위원장 대남 서한</p>	<p>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석 통보 및 실무협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북남상급회담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데 따라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이 참가하게 됨을 정식 귀하에게 알림. ○ 나는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채화 등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쌍방 체육관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측에서는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을 책임자로 하여 대표 3명과 수원 2명을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금강산에 보낼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0</p> <p>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대 북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 개최 제의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귀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 ○ 아울러 나는 귀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대회참가와 백두산 성화채화 등 제반절차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체육관계자들간의 실무접촉을 갖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 ○ 실무접촉은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적절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 지연 손실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는 데서 급선무는 미국측의 경수로 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손실 보상문제이며 미국이 우리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경수로 건설지연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손실을 주고 경제 전반에 난관을 조성하였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2~14</p> <p>제7차 남북장관 급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사항 실천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이번 회담이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사실무회담 조속 개최 등을 촉구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추위 제2차 회의 8.26~29 서울 개최 ○ 군사당국자간 회담 빠른 시일내 개최 ○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자 접촉 9월 중순 금강산 개최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9.4~6 금강산 개최,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협의, 추석계기 제5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에서 진행 ○ 금강산 관광 제2차 당국자회담 9.10~12 금강산 개최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실무협의(8.17~ , 금강산) 진행 협력 ○ 9.6~8 서울에서 진행되는 남북축구대회 적극 협력 ○ 태권도 시범단 교환 ○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 지역 방문 ○ 제8차 장관급회담 10.19~22 평양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2~14</p> <p>제7차 남북장관 급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사항 실천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제2차 경추위, 제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5</p> <p>8.15 민족통일대 회 공동 호소문</p>	<p style="text-align: center;">각종 계기별로 남북통일행사 추진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며 민족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연합을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남북 통일운동 단체들은 금강산에서 9.7~8 청년통일 행사, 9.12~13 여성 통일행사를 진행하고 개천절 등 각종 계기들에 해당 단체들 사이의 통일행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 지연 손실보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는 데서 급선무는 미국측의 경수로 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손실 보상문제이며 미국이 우리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경수로 건설지연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막대한 전력손실을 주고 경제 전반에 난관을 조성하였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7</p> <p>「한적」 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이산가족상봉 교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장관급회담의 합의정신에 부합되게 추석전인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상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상봉후보자 200명 명단은 8.26, 회보서는 9.4, 지원인원·취재기자를 포함한 상봉단의 최종명단은 9.6 교환할 것을 제의 ○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시의 전례를 토대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수시 협의
<p>2002. 8.17~20</p> <p>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 회 제1차 실 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준비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참가종목과 선수단 규모를 확정 ○ 성화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채화, 판문점에서 합화하고 생중계 실시 ○ 개폐막식에는 개별입장을 하기로 하고 북측 선수단 경비지원은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기타 참가단 경비는 방문자측이 부담하는 등의 우리측 기본입장을 제시 ※ 쌍방은 공동입장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 없이 접촉을 종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7</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북일 관계 정상화 희망’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적십자회담에서 상호관심사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와 일본인 처 고향방문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협의될 것임. ○ 우리 인민들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희망함.
<p>2002. 8. 17</p> <p>조평통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8.15 공동행사 관련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막으려는 외세와 반통일 세력의 사소한 방해책동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 ○ 북남 사이의 접촉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남의 눈치를 보며 민족 공동의 중대사들이 과탄되는 일이 없도록 외세와 반통일 세력의 사소한 방해도 허용해서는 안됨.
<p>2002. 8.17~20</p> <p>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 회 제1차 실 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대회 개최막시 입장은 시드니 올림픽과 같이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 ○ 성화는 북측이 백두산에서 채화하여 금강산 현대아산 측을 통해 남측에 전달 ○ 선수단 및 응원단의 왕래·체류 경비는 남측이 보장 ※ 쌍방은 공동입장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문 없이 접촉을 종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9</p> <p>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관련 우리측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에서 공동입장에 대해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원만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다만, 공동입장을 위해서는 우리측 조직위원회가 관련 단체 및 인사들과 검토하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봄.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9</p> <p>남북장관급회 담 단장 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 아시안경기대회 실무접촉 관련 협조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원인은 경기 개막식 공동입장을 귀측이 받아들이지 못한데 있음. ○ 우리측의 금번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결정은 사실상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내린 용단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 ○ 귀측이 제7차 북남상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시급히 우리측 안에 협력하는 조치를 취하여 오늘 중으로 금강산 실무접촉이 결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간주함.
<p>2002. 8. 19</p> <p>남북장관급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남전화 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 아시안경기대회 실무접촉 무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이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귀측 관계자들의 대화 회피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결렬되고 말았음. ○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경기에도 공동입장한 바 있는 북과 남이 이번에 제 나라, 제 땅에서 경기를 하면서 공동으로 입장하지 않고 제각기 입장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 ○ 우리는 귀측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굳이 반대하고 각기 입장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처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22</p> <p>판문점 연락관 접촉</p>	<p>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관련 구두 메시지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입장 문제는 대회 조직위가 관련 단체와 인사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는 조직위를 지원 협조하는 입장임. ○ 우리측의 이같은 결정과정은 귀측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19</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훈련 비난</p> <p>○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시 정책의 연장이며 북남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p>
<p>2002. 8. 19</p> <p>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이산가족 상봉관련 일자 등 협의</p> <p>○ 상봉후보자 명단은 8.22, 회보서는 9.3, 최종명단은 9.5 교환</p> <p>○ 상봉일자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 정하되, 남측이 제의한 9.13~18을 충분히 고려할 것</p>
<p>2002. 8. 20~24</p> <p>조선중앙통신 상보(8.26)</p>	<p style="text-align: center;">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p> <p>○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조관계 발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러시아 원동지역을 방문하였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23</p> <p>「한적」 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이산가족 상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3~24일 북측 적십자회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가지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
<p>2002. 8. 23</p> <p>부산아시아경기 대회 조직위원장 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제2차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접촉에서 쌍방간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보게 되었음. ○ 제2차 실무접촉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귀측의 현장 답사를 겸하여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만약 부산 방문이 어렵다면 귀측이 편리한 다른 장소를 제시하여 주기 바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24</p> <p>「북적」 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면회소 설치 등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도에 합의하자는 귀하의 입장에 동감을 표시함. ○ 아울러 귀측이 제안한 대로 이번 회담의 격과 의의에 부합되게 대표수를 5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봄.
<p>2002. 8. 24</p> <p>북측 올림픽위 원회 위원장 대 남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제2차 실무접촉 제의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제2차 실무접촉을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24~25</p> <p>남북 IOC위원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체육교류 활성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김운용 IOC위원과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24~25일 모나코에서 접촉을 가지고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
<p>2002. 8.26~28</p> <p>제14회 부산아 시아경기대회 제2차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합의서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입장문제에 대해 국민정서상 북측의 시드니 방식을 따를수가 없고 또한 응원단 경비지원도 명문화 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 ○ 개·폐회식 행사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 ○ 북측은 9월 5일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 9월 6일 금강산에서 조직위 관계자에게 성화 인제, 10여명의 남측 인원이 채화과정 녹화 및 참관 가능하도록 적극 편의 제공 ○ 북측 선수단 체류경비는 남측이 부담, 응원단 체류경비는 방문자측 부담 원칙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24~25</p> <p>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p>	<p>북·일, 국교정상화 문제 정치적 대처 필요성 공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5~26 평양에서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을 갖고 과거청산 문제를 포함한 국교정상화 문제의 정치적 대처 필요성 공감, 적십자회담 개최 환영 및 활동 지원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
<p>2002. 8.26~28</p> <p>제14회 부산아 시아경기대회 제2차 실무접촉</p>	<p>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합의서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입장 및 단일기 사용문제는 근본문제이고 선결문제이며 절대로 양보 불가 ○ 백두산 성화채화와 관련, 남측의 방송진이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채화된 성화전달도 금강산을 통해 조 직위 관계자에게 전달 입장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30</p> <p>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단건설 등 남북경협사업 추진문제 협의</p> <p>○ 위원장 : 윤진식(재경부 차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는 9.16 양측이 동시에 착수하여 철도는 금년내에, 도로는 내년봄까지 연결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임시도로는 11월말까지 연결하여 금년내 개통 ○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9월중에 개최 ○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금년내 착공을 위하여 9월중에 양측 사업자간 실무협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 시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식은 9.18에 쌍방이 동시에 개최 - 경의선 철도는 '02년 말, 도로는 '03년 봄, 동해선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구간을 1년을 목표로, 동해선 임시도로는 '02년 11월 말까지 연결하고 남측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제공 - 군사적 보장조치를 '02.9.18 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군사 실무회담 개최 -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13~9.15 금강산에서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8. 30</p> <p>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사업 추진문제 협의</p> <p>○ 위원장 :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경의선·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9월중 양측이 각기 편리한 지역에서 실시</p> <p>○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양측 당국선에서 책임지고 실 천하되 관련 특별법을 곧 제정·공포할 것이라고 언급</p> <p>○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되 임진강 상류 기상수문자료를 남측에 통보하고 남측 에서는 북측에 묘목을 제공</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해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 ○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16~18 금강산에서 개최 ○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 북측 경제시찰단은 10.26부터 남측을 방문 ○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t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공 ○ 「경추위 3차 회의」는 11.6~11.9 평양에서 진행 <p style="text-align: center;"><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금액은 톤당 미화 \$265로 하고, 남측은 북측항 까지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 ○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은 연 1.0% ○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2</p> <p>장기수 송환추진위 결의문</p>	<p style="text-align: center;">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향했다는 이유로 송환되지 못한 정순덕, 정순택을 비롯한 32명의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돌려보내야 함.
<p>2002. 9. 3</p> <p>「한적」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연기 제의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로 연기하여 갖자는 귀측의 제안에 동의 ○ 아울러 수해를 입은 귀측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
<p>2002. 9. 3</p> <p>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태권도 시범단 상호교류 관련 실무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태권도 협회는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남북태권도 시범단 상호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에 만전 ○ 우리 협회는 상호 5명으로 구성된 실무회담을 2002년 9월 8일 이전에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실무회담의 평양 개최가 어렵다면 판문점을 통한 문건 교환 방식도 가능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3</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 미군 주둔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미군의 영구 주둔을 꾀하고 있음. ○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 조성되고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달가와 하지 않고 있음.
<p>2002. 9. 3</p> <p>「북적」 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적십자회담 연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의 강원도 통천, 고성지방에서의 태풍과 무더기 비에 의한 피해 관계로 금강산에서 가지게 된 제4차 북남적십자회담을 부득이 9월 6일부터 8일 사이로 늦추지 않을 수 없음을 통지 ○ 귀측의 양해와 적절한 조치 기대
<p>2002. 9. 4</p> <p>조선태권도위원회 대남전화 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태권도시범단 상호교환 관련 문서교환 방식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현재 북남관계 일정이 바쁜 조건에서 북남태권도 시범단 교환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는 귀측의 의견에 동의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5</p> <p>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북전화 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백두산 성화채화행사 참관관련 북측 제의에 대한 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귀측의 강원도 통천, 고성지방에서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위로의 뜻 전달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채화 및 합화 일정을 감안할 때 백두산 성화채화 행사를 늦출 수는 없음. 따라서 귀측에서 9월 5일 백두산에서 채화하고 채화장면을 TV카메라로 녹화하여 9월 6일 우리측 참관단에게 성화 및 녹화테이프를 전달하여 주기 바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5</p> <p>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백두산 성화채화 행사 참관 연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통천, 고성지방에서의 태풍과 무더기 비에 의한 심한 피해와 현재 일기관계로 금강산에서 직송기가 뜰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백두산에서 예정된 성화채화 행사에 귀측 참관 대표단이 참가하기 어렵게 됨. ○ 백두산 성화 채화를 1~2일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나, 9월 5일 성화행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귀측 참관단이 참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두산 채화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귀측 참관단은 금강산에서 인수인계하는 행사에만 참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6~8</p> <p>제4차 남북적십자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금강산지역에 설치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시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협의·확정 - 금강산면회소는 남북이 공동건설 ○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협의 ○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 ○ 적십자실무접촉을 10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 제5차 이산가족상봉 9.13~18 실시
<p>2002. 9. 7</p> <p>대북정책조정 그룹회의(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일, 북에 핵사찰 수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에서 북한의 조속한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북한이 취한 경제개혁 조치와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 성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p>2002. 9. 10</p> <p>남북인사가족 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6.25 피랍자 생사확인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원 320여명 가운데 피랍자 147명에 대한 신상 명세서를 작성, 생사여부 확인을 정부에 신청 ○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방문하여 남북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6~8</p> <p>제4차 남북적십자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p> <p>○ 좌 동</p>
<p>2002. 9. 10</p> <p>조선태권도위 원회 대남전 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태권도시범단 방북 제의</p> <p>○ 방북일정 : 9.14~17 평양 태권도 전당에서 1~2차례 공연</p> <p>○ 방북경로 : 베이징 경유 평양 도착</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2</p> <p>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활성화방안 협의</p> <p>○ 수석대표 :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육로관광 실시</p> <p>○ 금강산관광 특구 지정 촉구 및 관광객 확대를 위해 자율통행로를 확대하고 관광코스를 추가 지정</p> <p>○ 장차 경의선 도로가 연결되면 개성지역으로 관광지역을 확대</p> <p>※ 합의서 없이 회담 종료</p>
<p>2002. 9. 12</p> <p>제14차 판문점장성급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북한군,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 합의</p> <p>○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4차 판문점장성급회담을 개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서명·교환·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주요내용></p> <p>○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지대를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함.</p> <p>○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문제들과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2</p> <p>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활성화 방안 협의</p> <p>○ 단장 : 김택룡(내각사무국 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쌍방 당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책임지고 적극 추진 및 지원</p> <p>※ 합의서 없이 회담 종료</p>
<p>2002. 9. 12</p> <p>제14차 판문 점장성급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북한군,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 합의</p> <p>○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4차 판문점장성급회담을 개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 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서명·교환·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주요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4</p> <p>제6차 남북군사 실무회담(평화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철도·도로 연결 군사적 보장 방안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합의서」(군사적 보장합의서)를 타결 ○ 동 합의서를 두 차례(9.16, 9.17) 서명·교환하여 발효키로 합의
<p>2002. 9. 16</p> <p>남북군사실무 회담 수석대표 접촉(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사적보장합의서」 1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4 타결한 「군사적보장합의서」에 남북 국방장관이 각각 서명하여 1차 교환
<p>2002. 9. 17</p> <p>제7차 남북군 사실무 회담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사적보장합의서」 2차 교환·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4 서명·교환한 「군사적보장합의서」를 최종 서명·교환하여 발효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서 주요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비무장지대에 남북관리구역(동해지구 100m, 서해지구 200m)을 설정 ○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 ○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 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 연결 등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4</p> <p>제6차 남북군사 실무회담(평화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군사적 보장 방안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합의서」(군사적 보장합의서)를 타결 ○ 동 합의서를 두차례(9.16, 9.17) 서명·교환하여 발효키로 합의
<p>2002. 9. 16</p> <p>남북군사실무 회담 수석대표 접촉(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사적보장합의서」 1차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2. 9. 17</p> <p>제7차 남북군 사실무 회담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사적보장합의서」 2차 교환·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4 서명·교환한 「군사적보장합의서」를 최종 서명·교환하여 발효시킴.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서 주요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7</p> <p>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금 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 일정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8 철도·도로 착공식 시간과 장소 사전 통보 ○ 비무장지대 우선시공,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임시도로는 10월중 우선 개통 ○ 북측구간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차관방식으로 공사진행에 따라 단계적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9월 18일에 하며 착공식 시간, 장소, 형식 등은 문서 교환방식으로 착공식 하루 전에 교환 ○ 경의선에서 철도는 종전의 철길노선을 따라 개성역으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의 15.3km구간과 미진된 남측구간 연결 ○ 동해선에서 철도는 1차적으로 온정리-저진사이 27.5km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 강릉방향에로의 남측구간 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 ○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철도 및 도로 접속지점은 쌍방군사당국이 합의한데 따라 공동측량을 거쳐 결정 ○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와 장비 등을 9월 안에,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산항과 해주항 등을 통해 북측에 제공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7</p> <p>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금 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 일정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 철도는 온정리-저진 사이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선 도로는 고성-송현리 사이의 구간은 2차선으로 연결 ○ 서해선 철도는 기존 철길노선을 따라 개성역-군사분계선까지 15.3km를 연결하고, 서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부지의 남쪽 경계선에서 철길로선 우측 (우리측 : 좌측)을 따라 4차선으로 건설 ○ 북측 구간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설비는 1차분을 9월중에, 나머지 전량은 올해 안에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8</p> <p>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임남댐 공동조사 관련 실무문제</p> <p>○ 수석대표 : 김창세(건교부 수자원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조사는 자료검토, 현장조사, 분석·평가의 순으로 실시</p> <p>○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기 수자원관련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20명 정도로 구성</p> <p>※ 합의사항 없이 회담종료</p>
<p>2002. 9. 19</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작업 착수</p> <p>○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도라선역 부근 남방한계선 철책 통문안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DMZ 안에서 지뢰제거 작업 착수</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18</p> <p>임남담 공동조사 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임남담 공동조사 관련 실무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량장균(건설건설공업성 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위성사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에 장애를 조성한데 대해 보상해야 함. ○ 임남 언제로 가는 지역 주변에 중요시설물이 있으므로 통과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조사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함.
<p>2002. 9. 19</p> <p>국방부</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작업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지역 DMZ 안쪽에서 지뢰제거 작업 개시
<p>2002. 9. 19</p> <p>북일정상회담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조일평양선언」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2. 9. 17 정상회담을 갖고 '10월중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등이 포함된 공동선언을 발표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22</p> <p>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상황실</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군사직통전화 개통</p> <p>○ 「군사적보장합의서」에 따라 남북 쌍방은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상황실간 직통전화를 연결하여 17:30경 시험통화를 실시</p>
<p>2002. 9. 25</p> <p>남북 개천절민족 공동행사준비위원회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개천절 행사 첫 공동개최 합의</p> <p>○ 남측의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위원장 한양원)와 북측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는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역사상 최초로 개천절 행사를 공동개최키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p> <p>○ 10.1~5 남측 대표단 100여명은 평양 등을 방문하여 개천절 기념식, 통일기원 기념식수, 민족예술공연, 단군관련 학술 토론회, 기념연회 개최 및 방북기간 중 단군 유적지 등을 참관, 남측은 향후 단군 유적 재건·복구·보전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p>
<p>2002. 9. 25</p> <p>재향군인회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자 송환 대북 촉구 성명</p> <p>○ 북한은 그동안 동족에게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북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남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생존자 귀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9. 22</p> <p>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상황실</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군사직통전화 개통</p> <p>○ 「군사적보장합의서」에 따라 남북 쌍방은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상황실간 직통전화를 연결하여 17:30경 시험통화를 실시</p>
<p>2002. 9. 23</p> <p>조선중앙통신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조인</p> <p>○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국제무역회사 사이에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23일 평양에서 조인되었음.</p>
<p>2002. 9. 23</p> <p>제8차 유엔지명 표준화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간 로마자 표기원칙 통일 제안</p> <p>○ 권동철 북측 수석대표는 남북간에 로마자 표기 원칙을 통일해야 하며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표기법 통일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3</p> <p>제1차 남북군사실무접촉(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 연결지점 및 동해선 통신연결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철도·도로 연결지점 및 측량과 동해선 통신연결이 가능하도록 1~2주 안에 철책 안에 통로를 개척할 것을 북측에 요구
<p>2002. 10. 5</p> <p>윤진식 경추위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분야실무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실무협의회 2차회의(10.12~15, 평양)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10.25~27, 개성)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2차회의(10.28~30, 개성)
<p>2002. 10. 8</p> <p>「한적」대북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이번 회담에서는 면회소 설치 운영 등 쌍방이 합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문제들을 협의 확정함으로써 이산가족들과 내외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3</p> <p>제1차 남북군사실무접촉(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 연결지점 및 동해선 통신연결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지뢰제거장비와 통신 운용에 필요한 무정전전원장치 및 소형발전기 지원여부에 관한 남측 입장을 타진
<p>2002. 10. 7</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켈리 특사 방북 결과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5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는 '우려사항'이라는 것을 내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여야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 미국이 일방적인 강경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도 특사에게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똑똑히 밝혀 보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1</p> <p>한일 납북자단체 연대</p>	<p style="text-align: center;">납치 피해자 송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납북자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납치 피해자 송환을 촉구 ○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납치 피해자를 즉각 송환할 것,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피해자 가족의 면담에 응할 것, 한일 양국의 북한 관련 담당자는 납치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구출에 협력할 것
<p>2002. 10. 11</p> <p>부산시장 · 장웅 IOC위원장 환담</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세계합창올림픽 등 각종 행사에 북한 참가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상영 부산시장은 11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장웅 북한 IOC위원을 만나 아시안게임 이후 곧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10.19-27) 등 각종 국제행사에 북한이 참가해줄 것을 요청
<p>2002. 10. 11</p> <p>제2차 남북군사 실무접촉(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경의선 · 동해선 비무장지대 구간 10.30까지 지뢰제거작업 완료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상호 검증절차를 거친다는 전제하에 10.30까지 경의선 · 동해선 전구간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한다는 데 합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9</p> <p>북적 중앙위원회 대남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의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수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는 면회소 설치문제 등에 대해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하는 것으로 합의 ○ 우리측은 이미 북남 사이에 합의한 대로 금강산에서 면회소 설치 등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가지고 접촉을 가지되, 그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10월 10일경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봄
<p>2002. 10. 9</p> <p>박창련 경추위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분야실무회담 개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제의한 3개분야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 ○ 단, 철도·도로실무협의회 2차 회의는 실무접촉으로 할 것을 제의
<p>2002. 10. 11</p> <p>제1차 남북군사실무접촉(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경의선·동해선 비무장지대 구간 10.30까지 지뢰제거작업 완료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2. 10. 11</p> <p>「북적」 대남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의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은 10.16~18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대한적십자사 제의에 대해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30일 쯤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4</p> <p>남북해외청년 학생 통일대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해외청년학생 대표들은 10.13~14 금강산에서 통일 대회를 개최하고 공동호소문을 채택 ○ 호소문 내용은 6.15 공동선언 관철, 전쟁 방지, 청년 학생들의 연대 실현을 주장
<p>2002. 10. 14</p> <p>제1차 남북철 도·도로연결실 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자재·장비 제공 합의서 및 인도·인수 절차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1·2 :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 자재 : 33개, 장비 : 45개 - 첨부3 :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 * 분배투명성 확보 : 제공주체(대한민국) 명시,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필요시 공사현장 방문 ○ 차관 제공 기간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이자율은 연 1.0%로 함 ○ 차관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에 의함. ○ 북측 지정항구까지의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측은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항만비용 및 체선료 등을 부담 ○ 북측은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인원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2</p> <p>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대남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 태권도 시범단 방한 관련 체류일정 등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범단의 서울 체류일정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하려고 함. ○ 태권도 시범단은 41명으로 구성할 것임.
<p>2002. 10. 14</p> <p>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자재·장비 제공 합의서 및 인도·인수 절차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6</p> <p>제3차 남북군사실무접촉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작업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10월말까지 지뢰제거 완료를 위해서는 북측이 제시한 일정의 2단계(10.21)부터 쌍방 작업현장의 검증을 선행하자고 요구
<p>2002. 10. 16~18</p> <p>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설치 운영문제와 관련 금강산면회소는 조속한 시일 내 설치, 건설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들은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위한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협의 ○ 우선 면회소 완공 이전에 금강산내 기존 시설들을 이용한 면회를 반드시 실시 ○ 전쟁 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과 관련해서는 자기측 적십자사에 접수된 명단을 서로 교환
<p>2002. 10. 17</p> <p>남북여성통일대회</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결의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여성대표들은 10.16~17 금강산에서 통일대회를 가지고 공동결의문을 채택 ○ 결의문 내용은 6.15 공동선언지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룩, 여성 사이의 연대와 단합 도모, 남녀평등 기틀 마련 등 4개항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6</p> <p>제3차 남북군 사실무접촉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작업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10월말까지 경의선·동해선 전구간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남측도 10월말까지 양지역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
<p>2002. 10. 16~18</p> <p>제1차 남북적 십자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하며, 면회소 크기는 약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함. ○ 형성설제는 북측이 주관하며, 자금자재는 남측이 노동력은 북측이 제공함. ※ 면회소 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없이 종결
<p>2002. 10. 17</p> <p>남북여성통일 대회</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결의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7</p> <p>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 사실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양국은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방북(10.3~5)시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중단키로 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국무부 대변인 성명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방북 특사단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에 전했다. ○ 북한 관계자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음. <p style="text-align: center;">〈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 성명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 특사 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관하여 통보받고 한·미·일 3국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음. ○ 북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p>2002. 10. 17</p> <p>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통일부 대변인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어떠한 핵개발도 반대' 입장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며 △새롭게 제기된 핵개발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폐기를 위해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동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7</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미군의 측각적인 철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등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가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정당화되고 있음. ○ 날강도적인 논리의 간판밑에 온갖 불행과 고통을 주는 미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때까지 반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9~23</p> <p>제8차 남북장관 급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문제, 화해협력 이행 및 제도화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측에 유관국 및 국제기구와 즉각 대화에 나서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남북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 ○ 철도·도로건설이 빨리 진척되도록 하며, 1차적으로 경의선을 개성공단에, 동해선을 금강산지역에 연결 ○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관계실무접촉 개최(11월중, 금강산) ○ 통행합의서 문제는 철도·도로의 처음 연결시기에 맞추어 협의 ○ 동해어장 개방을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 개최 ○ 금강산면회소 조기 건설,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 적극 지원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2003. 1월중, 서울)
<p>2002. 10. 24</p> <p>「한적」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실무접촉 수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귀측이 10월 30일경에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고 수정 제의한 점을 고려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 ○ 회담 대표단은 대표 3명과 수행원을 포함한 적정수의 지원인원과 기자단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19~23</p> <p>제8차 남북장관 급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문제, 화해협력 이행 및 제도화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2. 10. 22</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 제공지연 관련 보상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북미 기본합의문은 경수로 제공이 대폭 늦어진 것으로 해서 파기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 ○ 미국은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해서 우리가 입은 막대한 전력손실을 보상할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25</p> <p>제4차 남북군사실무접촉(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 연결공사 진도 상호 통보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남북관리구역내 철도·도로 공사진도를 10.25부터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
<p>2002. 10. 26</p> <p>대한올림픽위원장 대북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 북측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 체육대회에 귀하를 포함한 귀측 체육관계자들을 초청함.
<p>2002. 10. 26</p> <p>한·미·일 3국 정상 공동 보도문(멕시코 로스코보스)</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일,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이 미 북기본합의문, 비확산협약, 북한의 IAEA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 3국정상들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최근 「일북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맞게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25</p> <p>제4차 남북군 사실 무접촉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 연결공사 진도 상호 통보 합의</p> <p>○ 남과 북은 남북관리구역내 철도·도로 공사진도를 10.25부터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p>
<p>2002. 10. 25</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 불가침조약 제의</p> <p>○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가 된다고 인정함.</p> <p>○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 27</p> <p>APEC 정상 성명(멕시코 로스코보스)</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p> <p>○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한 약속을 명시적으로 준수하기를 촉구하며, 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함.</p>
<p>2003. 10. 30</p> <p>국회 본회의 결의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개발 계획 중단 촉구</p> <p>○ 핵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노력도 반대하며, 북한의 어떠한 시도와 계획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0.29~30</p> <p>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 담(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p>	<p style="text-align: center;">11월중 「북·일 안전보장협의회」 개최 합의</p> <p>○ 북한과 일본은 10.29~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제12차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 11월중 「북·일 안전보장협의회」개최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 중지·납치 일본인 송환·식민지배 보상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차기 회담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p>
<p>2002. 10. 30</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불가침조약 제안 관련 대미 비난</p> <p>○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 제안을 외면하고 계속 핵 위협을 감행해 온다면 그에 대응한 조치가 따르기 마련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p> <p>개성공단실무 협의회(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단건설 착공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강교식(건교부 국토정책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해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필요 ○ 통신, 통관 및 검역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 제기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오는 12월중에 하며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 ○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는 규정, 세칙들을 빠른 시일안에 제정 공포 ○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남측은 전력, 통신, 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 ○ 철도 및 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개성공단 건설에 따르는 통행·검역·통신 문제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쌍방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확정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p> <p>개성공단실무 협의회(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단 건설착공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착공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력, 통신, 용수 등 하부구조망 건설을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 ○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한 임대비와 기존시설물 철거비용은 남측 개발자가 당국의 지원하에 부담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p> <p>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 실시 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김창세 (건교부 수자원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조사를 11월중에 착수하여 2003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현지조사 실시, 이를 위해 사전 자료 교환 ○ 묘목제공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조림지역의 토양 등에 대한 공동조사 필요성 강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유역과 한강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 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음. ○ 남과 북은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대화와 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3차 회의를 2003년 1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p> <p>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 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 실시 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김병철(국토환경성 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조사와 단독조사를 병행하되 공동조사는 수해방지의 기본이 되는 산림조성, 저수지 건설, 하천정리 등에 필요한 지점에 국한 ○ 남측에서 묘목을 제공하되 그중 일부는 11월중에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8</p> <p>한일 양자협 의(동경)</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일, 제네바합의 유지 공감</p> <p>○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와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도쿄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선 핵포기, 후 대화' 입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할 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거꾸로 된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를 국제사회에 납득시켜 우리에게 대한 외교적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음.
<p>2002. 11. 5</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미사일발사 연장조치 재검토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해당부문에서는 북·일국교정상화회담이 이번(10.29~10.30)처럼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장기화될 경우 미사일 발사 연장조치를 재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음. ○ 우리는 새로 조성되고 있는 사태를 엄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9</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3 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경협사업 추진문제 협의</p> <p>○ 위원장 : 윤진식(재정부 차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핵개발을 절대 반대하며 내외에서 모두 우려하고 있는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 ○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지점 확정을 위한 공동측량을 11월 13일 실시하고 공사일정표 교환 및 공사진행 현황을 통보 ○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안정적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조속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고 11월중 철도·도로 연결지점에 대한 공동 측량 실시 ○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 착공,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남측은 빠른 시일 안에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 4개 합의서를 동시에 발효 ○ 해운협력 관련 실무접촉을 11.19, 동해어장 관련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9</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3 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경협사업 추진문제 협의</p> <p>○ 위원장 :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 동시추진, 동시 개통 ○ 북·남·러 철도상회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이를 위한 3자 또는 양자간 실무자접촉 개최 ○ 4개 경협합의서를 동시에 발효 ○ 쌍방 영해 통과 관련 해운협력 실무접촉과 남측 어민의 북측 동해어장 사용 문제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2. 11. 11 주한외교사절 초청 만찬	김대중 대통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 촉구 ○ 북한은 조속히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002. 11. 13 제5차 남북군 사실 무접촉 (통일각)	지뢰제거 작업 검증문제 협의 ○ 우리측은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된 검증을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자고 제의
2002. 11. 15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 논평	청와대, 북핵문제 해결 위해 남북대화 활용 언급 ○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관계국 정부들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대화 계기 등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12</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남한 장갑차 등 비무장지대 진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남측 군이 군사분계선대 밑에 장갑차와 자행포들을 끌어 들이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 ○ 이에 앞서 이날 08:30~09:30 남측 군이 전선동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080호 근처에 1대의 장갑차와 2대의 자행포를 끌어 들여 비무장지대 안의 기동로를 따라 진출시켰음.
<p>2002. 11. 13</p> <p>제5차 남북군사실무접촉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지뢰제거 작업 검증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지뢰제거 작업 검증 등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은 남과 북의 군이 협의·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17</p> <p>장영달 국회 국 방 위 원 장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 국방위, 지뢰제거 상호방문 검증 절차 관련 유엔사 결단 촉구</p> <p>○ 장영달 국회국방위원장은 지뢰제거 작업 남북상호 방문 절차에 대한 유엔사의 제동으로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주한 유엔사령부의 결단을 촉구</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18~20</p> <p>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한간 선박운항의 제도적 보장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해운협력을 위한 협의사항으로 남북간 항로개설, 운항선박의 안전 및 통신보장,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 공감, 민간 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행 등 남북간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 교환 ○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제2차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 ○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 개최 ('02.12, 금강산)
<p>2002. 11. 20</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경비정 NLL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1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북방 3.5마일 해상에서 NLL을 넘어 아군 초계함이 경고 포격을 가하자 14분만에 북측 해역으로 퇴각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18~20</p> <p>제1차 남북해 운협력실무접 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한간 선박운항의 제도적 보장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측항들과 북측항들 사이의 해상항로 설정과 그 운영문제, 남과 북의 평화적 민간선박들의 동해와 서해 및 남해에서 목적항까지 가장 가까운 항로를 따라 운항하도록 하는 문제 등을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0</p> <p>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연결 관련 공동측량문제 등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측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측량일정 ② 열차 및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③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 조정 ④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문제 등 협의 <p>○ 3국 철도상 회의문제는 남·북, 북·러, 남·러간 양자협의를 사전조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p>○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구간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도로 연결 남북관리구역 폭 - 측량기간 : 동해선 11.26~27간, 경의선 11.29~30간,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 - 측량인원 : 쌍방 철도 및 도로전문가 각각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 - 현지 측량자료 상호 교환 및 공동측량 결과자료 측량 후 최단기간 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 통보 확정 <p>○ 「차량운행에 대한 기본합의서」는 추후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p>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0</p> <p>제2차 남북철 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금강 산)</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 · 도로연결 관련 공동측량 문제 등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분 자재 · 장비제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 · 수량 확정 ○ 차량 운행합의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2</p> <p>모 범 경 찰 관 초 청 오 찬</p>	<p>김대중 대통령, 미국도 북한 생존권 보장 협력 필요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국도 협력하여야 함.
<p>2002. 11. 24</p> <p>차영구 국방 부 정책보좌 관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부, 지뢰제거 상호 검증 무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실태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이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었음. ○ 지뢰제거 검증과 무관하게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1</p> <p>외무성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중유제공 중단 결정은 북미기본합의서 위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4일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오던 중유제공을 오는 12월부터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음. ○ 이 결정은 조미기본합의문 제1항에 위반됨.
<p>2002. 11. 25</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중유제공 중단 결정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이번에 우리에게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매우 불손하고 오만한 행위임. ○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체결된 후 8년 동안 커다란 전력손실을 보면서 핵동결을 유지하여 왔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6</p> <p>제임스 솔리건 판문점 장성급 회담 유엔사측 대표 YTN 인 터뷰</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 지뢰검증 관련 MDL 통과 사전승인 방침 유지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유엔사의 개입을 이유로 들어 지뢰제거 상호 검증을 중단하였음. ○ 유엔사는 MDL 통과절차 관련 사전 승인 방침을 고수할 것임.
<p>2002. 11. 27</p> <p>황영수 국방부 대변인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협의 경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양측은 지난 10.25 판문점 군사실무회담에서 '11월 중 북측지역에서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 북측이 11.13 전화통지문을 통해 '행정상의 이유로 현시점에서는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통보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음.
<p>2002. 11. 28</p> <p>제임스 솔리건 판문점 장성급 회담 유엔사측 대표 기자 간 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 지뢰제거 상호검증 관련 유엔사 승인 배제시 남북 교류협력 차질 불가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유엔사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금강산 육로 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1. 27</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지구법」·개성공업지구법」 채택</p> <p>○ 11.25 「금강산관광지구」의 지정(10.23) 및 관련법 채택(11.13)을 발표한데 이어, 11.27에는 「개성공업지구」의 지정(11.13) 및 관련법 채택(11.20) 사실을 발표</p>
<p>2002. 11. 29</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지뢰제거 상호검증 관련 남측 언론보도 비난</p> <p>○ 미국의 책동으로 지뢰제거사업의 중단되게 되었으며,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음.</p> <p>○ 남측의 일부 언론들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를 뿐 아니라 사태를 단순하게만 보면서 분석할 줄도 모르고 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p> <p>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부-유엔사, 임시도로 통행 관련 절차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는 금강산 시범관광과 임시도로 공식 개통일 통행과 관련, DMZ 출입과 MDL 통과를 승인하고 국방부는 이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기로 했음.
<p>2002. 12. 4</p> <p>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적십자실무접촉 재개 관련 북측 입장 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판문점 연락관접촉을 통해 실무접촉 재개문제 관련 북측 입장을 타진하는 구두메시지를 전달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들을 매듭짓지 못하고 이산가족 교류가 중단되어 안타까움. - 면회소 건설 외에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들에 귀측에서 용의가 있다면 실무접촉을 조속 재개 협의 확정 하자는 것임. - 이같은 우리 적십자사의 입장을 귀측 상부에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기 바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p> <p>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 회 단장</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이 남북철도·도로 연결 방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6 판문점 북미장령급회담 미군측 대표는 북남철도도로가 연결되면 그 통로가 남침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리를 절고 이어 28일에는 정전협정에 따르는 군사분계선 통과문제를 들고 나와 북남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무시하면서 유엔군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강산 육로관광은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 여기에는 온 민족과 세계가 환영하는 북남철도도로연결을 반대하는 미국의 근본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p>2002. 12. 6</p> <p>「북적」 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적십자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1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것을 제의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8</p> <p>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강교식(건교부 국토정책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해 북측이 노동, 세금, 기업 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 및 세칙의 신속한 제정·공포 ○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채택 및 착공에 필요한 임시통행로 개통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 개설 -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 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8</p> <p>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 안에 착공장소를 정하고 2002년 12월 25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착공식을 실시 ○ 개성공단의 하부구조망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 관련 개발업체를 지체없이 선정,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9</p> <p>「한적」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개최 제의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 ○ 이번 접촉에서는 금강산면회소 설치 운영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접촉시 우리측이 제기하였던 기존건물을 이용한 면회 정례화 문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 등도 협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1</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함선 군사적 도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일 09:00경 남측 군은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남쪽 우리측 영해깊이 2척의 전투함선들과 5척의 어선들을 장시간 불법 침입시켰음. ○ 또한 12:22~12:57 연평열도 서남해상에 있던 남측 호위함 1척이 우리측 수역에 침범하였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2</p> <p>석동현 외교부 대변인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동결 해제 발표(12.12) 관련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한의 핵동결 해제 발표(12.12)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개최,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조약,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정부성명을 발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2</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핵동결 해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톤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음. ○ 핵 시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음.
<p>2002. 12. 1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서산호 나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일 미국은 예멘부근의 공해상에서 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집배 서산호를 백주에 침범하는 해적행위를 감행하였음. ○ 미국은 정상적인 무역활동 중에 있는 집배에 대해 감행한 파렴치한 해적행위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하며 우리 선원들과 집배에 끼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상에 대하여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3</p> <p>남북경제협력 제도 실무협 의회 제1차 회의(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경험합의서 후속조치 협의</p> <p>○ 수석대표 : 김성진(재정부 경제협력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법률 및 국제무역 투자실무에 정통한 인사로 구성하고 법인격을 부여 - 중재위원회 구성문제는 문서교환 방식과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 <p>○ 청산결제 문제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결제은행 선정은 청산결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고려하여 남북이 상호균형을 맞추어 설정 - 청산결제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추후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 <p>○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행 합의서 채택, 원산지 확인제도 마련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없이 회담 종료</p> <p>○ 남과 북은 쌍방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3</p> <p>남북경제협력 제도 실무협 의회 제1차 회의(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경험합의서 후속조치 협의</p> <p>○ 단장 :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재결원명단, 중재규정을 쌍방이 각기 작성하여 이 법이 발효된 시기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교환</p> <p>○ 청산결제, 거래대상은 선정하는 문제, 청산결제은행선정 문제를 〈북남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문서로 교환</p> <p>○ 〈북남사이의 투자보호에 관한 합의서〉와 〈북남사이의 소득에 관한 2중과세 방지 합의서〉는 쌍방 당국이 발효시켜 이행</p> <p>○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이번에 협의하여 채택</p> <p>※ 합의서 없이 회담 종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12.15~17</p> <p>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건평 2,300평 규모를 제시하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계획설계는 우리측이 초안을 마련하여 북한측과 협의 ○ 면회소 운영은 완공 1개월 전 협의·확정하자고 제의 ○ 전쟁시기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위해 2003년 1월중 상대측에 명단을 통보하며, 전쟁 이후 행불자 문제도 협의 해결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 ○ 2003년 1월과 2월에 시범적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2월 중 생사·주소가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300명의 서신을 교환할 것을 제의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문제와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2003년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 ○ 남과 북은 금번 접촉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년 1월 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가지고 계속 협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12.15~17</p> <p>제2차 남북적 십자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적십자실무접촉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면회소를 짓고, 계획설계는 북한측이 주관하며 착공식은 2개월 후 실시 ○ 면회소 운영·관리는 건물 완공 단계에 가서 협의·확정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6</p> <p>군 관계자 오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핵문제 평화적 해결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입장은 핵은 반대하되 전쟁을 통해서나 냉전 체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는 것임. ○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
<p>2002. 12. 17</p> <p>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연결공사 일정 및 차량운행 합의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연결공사를 늦어도 2003년 1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공사 추진 ○ 차량운행합의서의 통행료, 벌금 문제 필요성 제기 ○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보도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과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부문에 각기 제기 ○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7</p> <p>제3차 남북철 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금강 산)</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 · 도로연결공사 일정 및 차량운행합의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일정 조장 및 임시도로 개설 문제는 우리측 자재 · 장비 제공문제가 보장되면 어려움 없음 ○ 열차운행합의서 및 전체분 자재 · 장비목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보도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20</p> <p>내외신 기자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및 한미공조 병행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해 나가겠음.
<p>2002. 12. 23</p> <p>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시설 봉인 해제 등 원상복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의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재차 표명함. ○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것과 이제까지 취한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킬 것을 촉구함.
<p>2002. 12. 23</p> <p>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임시도로 통행 관련 군사적 보장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경의선 북한측 지역 철도공사 및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합의서 체결을 제안 ○ 남과 북은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임시도로 통행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진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19</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서산호 나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우리의 짐배를 억류하고 혼란을 조성한 것은 우리와 대결하자는 것임. ○ 미국은 우리 짐배에 대해 감행한 엄중한 해적행위에 대하여 사죄해야 하며 우리 선원들과 짐배에 끼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됨.
<p>2002. 12. 22</p> <p>조선중앙통신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그 무슨 실무협상 재개로 시간을 끌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작업을 즉시 개시하게 되었음.
<p>2002. 12. 23</p> <p>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임시도로 통행 관련 군사적 보장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북간 지뢰제거작업의 검증이 무산된 데 대하여 우리측을 비난하고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 남과 북은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임시도로 통행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진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25~28</p> <p>제2차 남북해 운협력실무접 촉(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운합의서」 채택, 가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남북간 해상운송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해상항로를 개설하는 항구의 추가,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남북관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해상항로대 설정 등을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해상운송 및 항로개설 ○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 선박의 통신보장 ○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등
<p>2002. 12. 27</p> <p>국회 통외통위 결의안</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동결 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는 핵동결장치의 일방적 해제행위에 반대하며 조속히 원상회복시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25~28</p> <p>제2차 남북해 운협력실무접 촉(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운합의서」 채택, 가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상대측 영해 통과 허용, 쌍방 항구간 항로의 최단거리 설정 등을 주장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27</p> <p>외 교통 상 부 대 변 인 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 결정(12.27) 중지 촉구</p> <p>○ 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은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각한 행위로서, 정부는 북한의 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2. 12. 27</p> <p>원자력총국장 대IAEA 서한</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사찰관 추방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사찰원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음.
<p>2002. 12. 31</p> <p>박의춘 주러 북한 대사</p>	<p style="text-align: center;">NPT 탈퇴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이 같은 환경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미보유국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하는 NPT를 이행할 수 없음.

2003 年

2003年 主要 提議・主張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6</p> <p>정세현 남북장관 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1.14~17 개최 제의</p> <p>○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함.</p>
<p>2003. 1. 6</p> <p>서영훈 「한적」 총재 대북전 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제의</p> <p>○ 200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3차 실 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p> <p>○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 평양 동시교환 방식으로 실시할 것과, 이산가족 상 봉 실무협의를 위해 1.10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1</p> <p>「노동신문·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p>	<p style="text-align: center;">‘민족공조 실현’ 강조</p> <p>○ 은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추켜들고 조국통일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하며 외세와의 공조를 추구하는 반민족적 책동은 배격해야 함.</p>
<p>2003. 1. 6</p> <p>김령성 남북 장관급 회담 단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 수정 제의</p> <p>○ 이미 합의한 대로 제9차 북남상급회담을 서울에서 1.21~24간 개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7</p> <p>외 교통 상 부 대 변 인 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에 IAEA 결의 존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IAEA 이사회가 1.6 북한 핵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함. ○ 정부는 북한이 IAEA 특별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지체없이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NPT 당사국으로서의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9</p> <p>북적 중앙위 원회 대남전 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지자는 남측의 제의에 동의 ○ 제6차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 날짜와 장소문제, 기타 절차 문제들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에서 협의·확정해도 될 것임.
<p>2003. 1. 10</p> <p>정부성명(중 앙·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함. ○ NPT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함.
<p>2003. 1. 12</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위협이나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시도임. ○ 미국은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오는 외엔 다른 대안이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15</p> <p>켈리 미 차관 보 면담</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한미군 필요성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 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임. ○ 주한미군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입장임.
<p>2003. 1. 15</p> <p>한·일 외무 장관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NPT 탈퇴 철회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최근 조치('03.1.10 NPT 탈퇴선언)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배치됨. ○ 우리는 북측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즉각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함.
<p>2003. 1. 15</p> <p>정세현 남북장관 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날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자 전화통지문을 잘 받았음.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1.21~24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제의에 동의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13</p> <p>박의춘 주러 북한대사</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제재는 전쟁’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적대정책을 그만 두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이것은 국제사찰 수용을 의미하지 않음. ○ 북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도 전쟁선포로 받아들여질 것임.
<p>2003. 1. 15</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 선 핵포기 주장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선 핵포기, 후 대화’ 조건을 견지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자세가 아님. ○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은 평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협상을 하자는 것임.
<p>2003. 1. 17</p> <p>박창련 경추위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식량차관 40만톤 제공에 사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추위 제2차 회의(8.27-8.30, 서울)에서 북측에 식량 40만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키로 한데 대해 사의 표명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0~22</p> <p>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실무접촉 합의서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 기본 입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온정리 조포마을 구역으로 하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함. ○ 제6차 상봉은 2003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고, 면회소 완공 전 지속적으로 상봉 실시 ○ 전쟁시기 행불자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2003년 2월, 3월 중 각기 200명씩 명단을 교환, 2003년 3월과 4월에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명단을 각기 100명씩 교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 서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함. -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형식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며 연건평은 건설 실무자들이 협의·확정 -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 설계는 남북이 공동 협의 - 면회소 건설은 1년 내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4월중 실시 -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각기 10명씩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접촉을 2월 10일에 진행 - 운영문제는 면회소 완공 1개월 전까지 확정 ○ 제6차 이산가족상봉을 2. 20 ~ 25 금강산에서 실시 ○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 등은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 ○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0~22</p> <p>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채택</p> <p style="text-align: center;">< 기본 입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하며, 규모는 1천명 정도 수용, 연건평 규모는 건설실무자간에 협의·확정 ○ 설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하며, 착공식은 2003년 4월 중 실시 ○ 제6차 상봉은 2003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 ○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시범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은 제6차 상봉과 면회소 착공 후 협의·해결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1~24</p> <p>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문제 및 남북경협사업 등 현안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핵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긍정평가, 계속 준수·이행 ○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진행중인 교류 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경추위 4차회의 개최(2.11~14, 서울)
<p>2003. 1. 25</p> <p>CNN 인터뷰</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남북대화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없이 만나 북한과 대화해야 함. ○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형식과 절차를 따지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생각임.
<p>2003. 1. 25</p> <p>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p>	<p style="text-align: center;">3. 1 남북공동행사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24 평양 실무접촉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 개최 합의 ○ 6.15 공동선언 3주년, 광복절, 개천절 등 기념일에 서울 또는 평양에서 공동행사를 추진기로 합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1~24</p> <p>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핵문제 및 남북경협사업 등 현안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외세의 방해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이 민족공조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변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3. 1. 25</p> <p>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핵문제 북미간 직접대화로 해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고 다자회담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임. ○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조미간 평등한 자세에서 직접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5</p> <p>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평 양)</p>	<p style="text-align: center;">자재·장비 전체분 제공 문제 및 열차운행합의서· 차량운행사무소 관련 문제 협의</p> <p>○ 수석대표 :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경의선 철도를 2월 중순경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 및 개통식 진행 문제 협의 필요</p> <p>○ 자재·장비 적기 제공을 위해 경의선·동해선 임시 도로 조속 개통</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p>○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p> <p>○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p> <p>○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협의, 빠른 시일내에 문서 교환방식으로 채택</p> <p>○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5</p> <p>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자재·장비 전체분 제공 문제 및 열차운행합의서·차량운행사무소 관련 문제 협의</p> <p>○ 단장 :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남북간의 철도·도로연결 착공이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과시한 사변이나 외세의 간섭과 훼방으로 합의된 일정이 지장을 받고 있음.</p> <p>○ 기합의된 공사용 설비·자재의 품목과 수량, 제공 날짜 등을 재확정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7</p> <p>제7차 남북군 사실무접촉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 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 개방 ○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사전에 일방에 통보 ○ 승인과 관련된 절차들은 유엔사-북한군간에 체결된 합의서('02.1.17, '02.9.12)와 남북군사보장합의서('02.9.17) 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 등
<p>2003. 1. 27~29</p> <p>대통령 특사 임 동원 특보 제2차 방북</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동원 특사는 북한측이 취한 핵 관련 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설명하고 북핵문 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7</p> <p>제7차 남북군 사실 무접촉 (통일각)</p>	<p>「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p> <p>○ 좌 동</p>
<p>2003. 1. 27~29</p> <p>대통령 특사 임 동원 특보 제2차 방북</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 협의</p> <p>○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현단계에서는 개발할 의사가 없다면서, 핵문제는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28</p> <p>범민련 남측 본부 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 민화협, 부산시에 협력사업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측 민화협이 부산시에 보낸 문건을 발표 - ‘지난 아시안경기에서 편의와 성의를 표시해준 부산 시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림’ - ‘우리는 부산시와 협력사업을 위해 실무접촉을 갖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p>2003. 1. 31</p> <p>NHK-TV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유엔 통한 대북제재 반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위기가 아직 유엔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다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음. ○ 나는 북핵문제가 유엔에 회부되더라도 유엔을 통한 제재나 심지어 무력사용 등이 논의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 31</p> <p>박의춘 주러 북 한대사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특별이사회 불참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IAEA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함. ○ 우리는 2.12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특별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4</p> <p>「한적」대북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회의 일자 수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첫 접촉을 2월 10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측은 2월 10일 일자에 맞춰 준비를 해왔으나, 설봉호 운항 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 접촉 일자를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할 것을 제의 ○ 우리측 건설추진단은 추진단원 10명과 적정 지원인원으로 구성될 것임.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1</p> <p>아·태위</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육로관광 진행 일정 발표</p> <p>○ 금강산육로시험답사와 기본육로관광을 2.4~14 사이에 진행</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5</p> <p>통일부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협력기금대출제도 개선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내 대출절차는 통일부로 일원화 ○ 대출 이자율을 최대 2%까지 경감 ○ 대출신청 접수창구를 기존 통일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추가
<p>2003. 2. 5</p> <p>임시국회 본회의 국정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김석수 총리, 남북관계 지속 진전 필요성 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계속 진전시켜야 함. ○ 정부는 2월중 경의선 철도연결, 금강산시범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5</p> <p>조평통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 특사 방북시 '접견' 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이번에 남측 특사는 평양에 와서 동쪽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환대를 다 받았음. ○ 그러므로 남측 일부에서 떠드는 '접견' 문제는 도덕적으로 보나 관례와 예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소리임.
<p>2003. 2. 5</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핵활동 평화적 생산 국한' 재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우리가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의 가동을 재개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하여 '또 하나의 도발' 이라고 하고 있음. ○ 우리는 이미 핵 활동이 현 단계에서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생산에 국한된 것임을 선언한 바 있음.
<p>2003. 2. 5</p> <p>「북적」 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 개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면회소 건설 상무조 1차회의를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자는 귀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10</p> <p>칸 나토오 일 본 민주당 대 표 접견</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의회 협력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 ○ 북한 핵문제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속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람.
<p>2003. 2. 10</p> <p>2003 민족공동 행사 남측준비 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3.1 민족대회 서울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북측 종교계 및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측과 각각 실무접촉을 가지고 3.1 민족대회를 3.1~3일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p>2003. 2. 11</p> <p>민주평통 합 동회의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핵문제 중재자 역할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관련 한국정부의 입장을 미국편이나 북한편이나 하는 식의 양단논법으로 몰아갈 수는 없음. ○ 한국은 북핵문제 당사자인만큼 중재역할을 해야 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6</p> <p>조평통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무력증강은 전쟁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대적인 무력증강 책동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임. ○ 우리와 미국이 핵문제로 팽팽히 맞서 있는 오늘 일방의 도발적인 무력증강은 곧 전쟁을 의미함.
<p>2003. 2. 10</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대화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흥계를 걷어치우고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에 응해야 함.
<p>2003. 2. 12</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테러정권 지정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테러정권 지목은 우리를 다음번 공격목표로 내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됨. ○ 미국의 압박이 명백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서는 가야할 길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13~15</p> <p>제1차 금강산 면 회 소 건 설 추진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면회소 규모, 계획설계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면회소 규모와 관련하여 면회소 건물형태 및 기본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구체적 규모가 산출될 수 있다고 주장 ○ 계획설계는 쌍방 각기 초안을 마련하여 추진단에서 협의·확정, 실시설계는 우리측이 주관 ○ 면회소 건물형태 및 설계 등 선행공정을 먼저 확정하고 착공식 문제는 추후 협의
<p>2003. 2. 14</p> <p>대국민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대금송금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는 대북송금 대가로 철도 등 7대 사업권을 얻었음. ○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했음.
<p>2003. 2. 14</p> <p>통일부·현대아산</p>	<p style="text-align: center;">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시범 육로관광 실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3부터 일반인 대상 육로이용 금강산관광 실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13~15</p> <p>제1차 금강산 면회소 건설 추진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면회소 규모, 계획설계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면회소의 연건평을 우선 확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건평 2만 2천평 규모의 건물 및 부대시설 내역을 제시 ○ 계획설계는 북측이 하고 실시설계는 남측이 주관 ○ 착공식을 2003년 4월 중에 실시하자고 주장, 추진단은 금강산 지역에 상주하여 협의 지속
<p>2003. 2. 14</p> <p>「북적」대남 전화통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육로 통한 이산가족 상봉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제6차 상봉에 참가할 귀족 흩어진 가족·친척들이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14</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경협사업 추진일정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윤진식(재경부 차관)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의 국제적 우려 전달 및 평화적 해결 조치 촉구 ○ 철도·도로연결을 합의된 시일내 완료 및 개성공단의 조속한 건설에 협력해 줄 것을 제의 ○ 임진강공동조사 3월중 실시, 4대경협합의서 조기 발효, 식량 및 자재·장비 제공 관련 분배현장 확인 필요 강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 ○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 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경추위 제5차 회의는 4월 중 평양에서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14</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경협사업 추진일정 협의</p> <p>○ 위원장 :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핵문제와 관련하여는 더 이상 논의 불필요</p> <p>○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발전 시키겠다는 입장</p> <p>○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 관련 ‘동시연결·동시개통’ 원칙 강조</p> <p>○ 해운협력,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등 경협사업과 관련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18</p> <p>국무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김대중 대통령,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도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맹방임. ○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적 진출을 하는 데도 미국의 영향은 막강함. ○ 북핵문제를 푸는 데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16</p> <p>김재록 에너지국장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핵발전소 추가 건설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많은 지역이 난방과 조명이 되지 않아 추가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긴급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건설예정인 핵발전소들의 전력생산능력은 200메가와트로 영변원자로 생산능력의 40배에 달함. ○ 새로 건설될 핵발전소들은 긴급한 전력수요를 위한 것임.
<p>2003. 2. 17</p> <p>인민군 판문점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미 위협 봉쇄행위 간주'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측이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그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가해 온다면 이는 곧 정전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봉쇄행위로 간주함. ○ 인민군 군대는 부득불 정전협정조인 일방으로서 협정에 의해 지닌 의무이행을 포기하며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24</p> <p>국방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지대함 미사일 발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음. ○ 동 미사일이 신무기개발 시험인지, 기존무기 발사훈련인지는 확인 중임.
<p>2003. 2. 26</p> <p>판문점 연락관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2차회의 개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2차 회의(3.3~5, 금강산)관련 체류일정 등 실무문제를 협의 ○ 쌍방은 숙소 및 회담장, 체류일정, 왕래절차, 통신, 차량 지원 등 관련사항을 협의
<p>2003. 2. 28</p> <p>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에 NPT 및 IAEA 의무 이행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5MWe 원자로 재가동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는 물론 국제사회의 NPT 확산노력에 배치되는 것임. ○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호응할 것과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2. 22</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핵문제 당사자는 북·미’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세력이 한반도의 핵문제가 우리와 국제공동체 사이의 문제인양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음. ○ 그들의 발언에 아무런 타당성도 없음. ○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임.
<p>2003. 2. 23</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내 주한미군 철수론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일로써 이러한 사실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p>2003. 2. 27</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군사훈련은 핵선제공격 연습’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감행하려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연습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 ○ 특히 이것들은 그 규모와 성격, 훈련내용으로 볼 때 북침 핵선제공격 연습임이 명백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1~3</p> <p>3.1 민족대회</p>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별 공동행사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노동단체들은 모임에서 한국노총관계자와 민주노총관계자 15명이 3.10~15 평양을 방문해 5.1 노동절 공동행사를 치르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 ○ 청년학생모임에서는 4월초 선양에서 2003년 남북청년학생교류를 위한 합동회의를 갖기로 합의 ○ 농민모임에서는 남북농민통일대회를 7월초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은 북측의 사회민주당 대표들과 접촉을 갖고 4월말 민노당 대표단의 방북과 남북정당 연석회의 개최를 합의
<p>2003. 3. 3~5</p> <p>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2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2차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면회소 규모문제와 관련하여 면회소 장래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3,039평 규모가 바람직하며, 이산가족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콘도미니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 ○ 남과 북이 선행공정 일정에 합의하는 데 따라 착공식에 필요한 자재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설명 <p>※ 쌍방은 면회소 건물형태, 연건평 규모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합의서 채택없이 회의 종료</p>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1~3</p> <p>3.1 민족대회 개최(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별 공동행사 합의</p> <p>○ 좌 동</p>
<p>2003. 3. 3</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행정협정 철폐 촉구</p> <p>○ 남조선에서 한미행정협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음.</p> <p>○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의 만행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문서로서 당장 철폐해야 함.</p>
<p>2003. 3. 3~5</p> <p>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2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2차회의</p> <p>○ 북측은 면회소 규모를 18,000명을 제시하면서 건물의 형태는 금강산 지역의 풍치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10~12층을 초과하지 않는 종합센터 형태로 지을 것 을 제의</p> <p>○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2003년 4월 중 실시를 전제로 착공식용 설비 자재를 단계별로 제공할 것을 요청</p> <p>※ 쌍방은 면회소 건물형태, 연건평 규모 등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함으로써 합의서 채택없이 회의 종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7</p> <p>국방부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긴장조성 행위 관련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은 지난 2.20 전투기로 서해 NLL를 침범한 이래 최근까지 일련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지난 2일에는 미군 정찰기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충돌의 위험 상황을 초래했음. ○ 북한군의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군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4</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37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송금 특별검사제 도입시 남북관계 동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제 도입의 강행은 현 남북관계를 대결에로 돌아가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동결상태에로 몰아넣게 될 것임.
<p>2003. 3. 5</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군사연습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군사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험적 침략전략임. ○ 미국은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외면하고 정세를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9</p> <p>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 독자적노선 불가피성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입장이 변하는 바람에 독자성이 불가피해졌음. ○ 세계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함.
<p>2003. 3. 10</p> <p>국방부</p>	<p style="text-align: center;">북 동해 지대함 미사일 발사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3.10 12:00경 함경남도 신상리 해안에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음. ○ 발사지점과 미사일 종류는 지난 달 24일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p>2003. 3. 11</p> <p>김종필 자민련 총재 회동</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 문제 관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송금 문제는 조성과정에 대해선 솔직히 밝혀야 함. ○ 그러나 남한에서 일어난 조성문제 등은 특검에서 조사하되 북한에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함.
<p>2003. 3. 11~15</p> <p>남북노동자대 표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선언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측의 직총은 3.11~15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를 개최 ○ 남북노동자들은 통일선언문에서 '조국통일의 자주적 실현, 통일의 평화적 실현,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달성' 등을 천명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10</p> <p>아태위 상보</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대북지원 제안’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제한 없는 지원을 제안해왔음, ○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전 밀사를 보내어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을 담보하였음. ○ 이 문제는 북남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현재로선 공개하기 어려움.
<p>2003. 3. 11~15</p> <p>남북노동자대표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선언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12</p> <p>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p>	<p>공사용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 및 이용결과 통보 형식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공사 3월 하순 착수 및 1차 자재·장비 제공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 협의할 것 제의 ○ 경의선(3.24~26), 동해선(3.28~30) 현장방문 실시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공사착수 5일 전까지 협의·확정 -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착수 5일 전까지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하여 제공 ○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 방문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3.20~22), 동해선(3.24~26) - 현장방문을 기술인원들은 단장(대표1명), 기술인원 4~5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12</p> <p>제4차 남북철 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p>	<p>공사용 자재 · 장비 사용현장 방문 및 이용결과 통보 형식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은 제공된 자재 · 장비의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 ○ 고장난 설비의 정상가동에 대한 중점적 협의 ○ 동해선 공사에 주력해 줄 것과 착공행사는 의의있게 진행하자고 제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13</p> <p>통일외교통상 위원회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핵문제 해결 위해 남북대화 활용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의 일환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임. ○ 특히 남북대화를 북핵문제 해결 통로로 활용할 것임. ○ 이를 위해 4월 평양에서 개최될 제10차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촉구할 방침임.
<p>2003. 3. 15</p> <p>대통령 업무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부, 북 대포동 미사일 발사설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 중이라는 것에 대해 한미공조로 확인한 결과 그 같은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음. ○ 일본 아베 장관의 그 같은 발언은 훈련장면을 잘못 판단해서 나온 것으로 보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14</p> <p>아태위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밀사파견’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9월과 12월에 한나라당에서 보내온 밀사는 평양과 베이징에서 자기들의 청원을 북측에서 들어만 준다면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자금은 물론 항목과 규모에 제한 없이 통 큰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북에서 이회창 후보를 밀어 달라고 요청하였음.
<p>2003. 3. 18</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적대시 정책 폐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북·미가 마주 앉아 평등성과 신뢰에 기초하여 토론하면 옳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북·미가 탁자에 앉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그만 두는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20</p> <p>청와대</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 지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함. ○ 나는 한미동맹 등 제반 요소를 감안,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음.
<p>2003. 3. 22</p> <p>김광림 경추위 위원장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경험제도·해운협력회담 일방적 연기 통보에 유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6일부터 개최하기로 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와 제3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귀측의 이번 조치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에도 맞지 않으며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
<p>2003. 3.22~26</p> <p>밀알선교회-조선그리스도연맹</p>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와 의약품 기증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알선교회는 3.22~26 방북하여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한다는 의향서를 작성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21</p> <p>조평통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이라크전 관련 남측 대응조치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당국은 이라크전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결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다각적인 대응책이니 하고 소란을 피우며 전역에 전쟁전야에만 발동하는 테프콘-2라는 '초경계태세'를 내렸음. ○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무모한 불량난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에 미칠 돌이킬 수 없는 후과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p>2003. 3. 22</p> <p>박창련 경추위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분야 회담 연기 담화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당국이 이라크 전쟁을 구실로 테프콘-2라는 위험천만한 초강경 태세를 취한 것은 온 겨레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임 ○ 우리는 3월 26일부터 평양에서 가지게 되어 있는 경협제도 2차 회의와 해운 3차 접촉을 미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22~26</p> <p>김원웅 의원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 민족평화제전 7월 개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는 3.8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전금진 부위원장과 만나 오는 7월 제주도에서 '통일민족 평화체육축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 김원웅 대표는 "양측은 민간차원의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
<p>2003. 3. 24</p> <p>대통령 업무보고</p>	<p>통일부, 평화번영정책 관련 「5개 현안·2개 전략과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는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5개 현안·2개 전략과제」를 제시 ○ 당면 5개 현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교류협력활성화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문제해결 △남북대화의 지속적 추진 ○ 2개 전략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의 지속적 추진
<p>2003. 3. 25</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 어선 NLL 월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어선 2척이 금일 16:40경 백령도 동쪽 6마일 해상에서 NLL을 2마일 가량 월선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24</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이라크전쟁 관련 남측의 데프콘-2 발령 비난</p> <p>○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따른 북의 도발가능성이라는 간판 밑에 남조선 전 지역에 데프콘-2라는 초경계태세를 발령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파렴치한 반공화국 침략행위이며 용납 못할 전쟁범죄 행위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29</p> <p>한미외무장관 회담(워싱턴)</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북핵문제 다자대화틀 속 해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북핵문제를 '6자포럼'과 같은 다자대화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
<p>2003. 3. 30</p> <p>한일외무장관 회담</p>	<p style="text-align: center;">한·일, 남북 및 북일 관계 관련 입장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일관계가 조속히 재개돼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 ○ 요리코 외상은 일·북간 평양선언의 정신에 입각,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3. 26</p> <p>리찬복 인민 군 판문점 대 표부 상장 대 유엔사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판문적 연락군관 접촉 중단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수차례 귀측에게 대규모 군사연습과 무력증강행위 중지를 요구했음. ○ 그러나 귀측은 RSOI 등 군사연습을 벌이며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를 남측에 반입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나는 판문점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쌍방 연락군관 접촉에 우리측 연락군관을 파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3.</p> <p>하순봉 한나라 당 최고위원 임시국회 교섭 단체 연설</p>	<p>한나라당,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남북한 국회대표자 회의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을 제의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5</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핵억제력 강화는 정당방위’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선제공격, 무력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방위 조치임. ○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는 미국의 무분별한 행위는 우리가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그 누구도 시비할 근거가 없게 하고 있음.
<p>2003. 4. 6</p> <p>외무성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안보리 소집 관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의 NPT 탈퇴 문제를 토의할 회의를 9일에 소집하도록 하였음. ○ 유엔을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참가하에 소집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의 그 어떤 결정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7</p> <p>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조속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부터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북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제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조속한 시일내에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함.
<p>2003. 4. 7</p> <p>국제의원연맹 총회 대표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박관용 국회의장, '북 NPT 복귀시 과감한 지원'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NPT 체제로 복귀하면 한국은 과감하게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과 관련국들도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문제를 비롯한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임.
<p>2003. 4. 10</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현대측이 제출한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관련 협력사업 변경 승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인상분 반영 - 미화 3천420만달러(총 사업비 59.5%)⇒4천776만달러(85%)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4. 4. 8</p> <p>김영춘 참모총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0주년 중앙보고대회</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 안보리 개입시 대화노력 파탄’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압살정책에 도용된다면 모든 대화노력이 파탄되고 정세가 엄중하게 되는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임.
<p>2003. 4. 12</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 안보리 회의 진행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우리의 핵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음. ○ 회의는 아무런 결정도, 문건 채택도 없이 끝났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15</p> <p>문화일보 인 터뷰</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여건 미성숙'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남북정상회담때 합의사항은 큰 틀에서 유효하며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정상회담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님. ○ 지금은 핵문제가 중요한 만큼 북미대화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p>2003. 4. 15</p> <p>통일외교통상 위원회 답변</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다자회담시 북한의 관심사 논의'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다자회담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임. ○ 미국 정부는 다자회담 형식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과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p>2003. 4. 18</p> <p>한상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대화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와 관련 3자대화가 열림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음. ○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17</p> <p>「북적」장재언 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한적」에 쌀·비료지원 요청</p> <p>○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쌀·비료 지원을 요청</p>
<p>2003. 4. 18</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진행’ 언급</p> <p>○ 8천여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21</p> <p>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 관련 북측 제의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4.27~29 평양에서 개최하는 북측의 제의에 동의함.
<p>2003. 4. 23</p> <p>안보 관련 장관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3자회담 형식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다자든 양자든 회담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님. ○ 때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의 회담참여 문제는 명분보다는 실질적 결과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야 함.
<p>2003. 4. 24</p> <p>유보선 국방부 차관 국회 예결위 답변</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부 차관, 북 핵무기 보유 단정 곤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10~12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현 단계에서 보유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19</p> <p>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단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4.27~29 평양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4.7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협의할 데 대한 의사를 표명해온 사실 등을 고려하여 4.27~29 평양에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 것을 제의함.
<p>2003. 4. 24</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적대정책 버리면 적대국과도 관계개선’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3. 4. 26	북측의 금강산관광 불허에 따라 당분간 금강산관광을 중단한다고 발표
현대아산	○ 북측이 'SARS'를 이유로 금강산관광을 중단한다고 통보(4.25)해옴에 따라 부득이 당분간 금강산관광을 중단할 수밖에 없음.
2003. 4. 27	30만명분의 말라리아 치료·예방약 대북지원
통일부 대변인	○ 통일부는 30만명분(미화 70만달러 상당)의 말라리아 치료·예방약을 WHO를 경유하여 북측에 지원한다고 발표
2003. 4. 27	여야의원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
국회	○ 민주당 임채정, 한나라당 이부영 등 여야의원 36명은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25</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베이징 3자회담시 새로운 해결방도 제시’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도를 내놓았음.
<p>2003. 4. 25</p> <p>아태위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중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을 우려하여 당분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고 통보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4. 27-30</p> <p>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6.15 공동선언 실천 문제 및 북한 핵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 재확인, 이를 철저히 이행 ○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 민족통일대축전 지원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 추진 ○ 기 합의되거나 예정된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제7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 빠른 시일내 개최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7.9~12)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1</p> <p>한국불교종단 협의회 - 조선 불교도 연맹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초파일 남북공동발원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은 부처님오신 날 전국 사찰의 법요식에서 동시 봉독하게 될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 ○ 발원문은 “민족의 생존과 전도를 위협하는 전쟁의 위험을 막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일념에서 우리 남과 북의 전체 불교도들은 한마음 모아 부처님 앞에 삼가 서원을 올린다”는 내용
<p>2003. 5. 3</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경비정 NLL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비정 1척이 5.3 09:46경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백령도 동쪽 NLL을 0.8마일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함정이 출동하자 10:00경 북상했음.
<p>2003. 5. 6</p> <p>공명당 등 일본 방한단 접견</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 해결 기본원칙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무기 불용, 대화를 통한 해결, 한·미·일간 긴밀한 협의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본원칙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1</p> <p>김일성사회주의 청년 동맹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당국이 청년학생 실무접촉 방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북남청년학생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남한 당국이 민족자주권, 평화수호라는 의제의 성격상 정치행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가로막았음. ○ 남조선 당국의 매국배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에 대해 공화국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의 이름으로 규탄함.
<p>2003. 5. 4</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868호</p>	<p style="text-align: center;">보안법 철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과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는 대결과 분열의 법적장치인 보안법이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의 6.15시대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임.
<p>2003. 5. 6</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테러지원국 재지정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핵문제 해결에 더 큰 복잡성을 조성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 밖에 없다고 비난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8</p> <p>윤태영 청와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북 폐연료봉 재처리 확인 중’ 언급</p> <p>○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시작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지난 4월말 징후를 포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추가활동이나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확인 중’이라고 언급</p>
<p>2003. 5. 13</p> <p>건국대 특강</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경협 지속 필요성 강조</p> <p>○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협은 계속되어야 함.</p>
<p>2003. 5. 14</p> <p>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p> <p>○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음.</p> <p>○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될 것이라는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음.</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9</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핵문제 관련 행동조치 자위권 행사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미국의 압살정책에 대처해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한 자위권 행동임.
<p>2003. 5. 12</p> <p>조선중앙통신 상보</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노력에 도전해 끊임없는 핵위협을 조성,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켜 버렸음. ○ 결국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압살 책동에 의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백지화되었음.
<p>2003. 5. 14</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대 EU관계 발전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을 지향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실현하려는 유럽 동맹의 노력은 우리와의 관계발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3. 5. 16 통일부대변인	<p style="text-align: center;">비료 20만톤 대북지원 결정</p> <p>○ 정부는 비료 20만톤을 한적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p>
2003. 5. 19 국회 답변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비핵화공동선언 유효 입장 언급</p> <p>○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비핵화선언이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임.</p>
2003. 5. 21 청와대대변인	<p style="text-align: center;">경추위 회의에서 한 북측 재난발언 유감 표명</p> <p>○ 「경추위 제5차 회의」에서 북측 경추위원장의 재난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유감을 표명</p>
2003. 5. 22 청와대 일일 소식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추가적 조치' 해석 관련 언급</p> <p>○ 북핵문제 악화시 검토될 것이라는 이른바 추가조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추가적 조치'가 군사적 행동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임.</p>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19</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물리적 억제력 불가피’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노골화되는 핵전쟁 책동을 부수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강력한 물리적 억지력, 정당방위 수단을 가지는 길밖에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23</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3대 경협사업 추진 및 쌀 지원문제 협의</p> <p>○ 위원장 : 김광립(재경부 차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경협원칙을 설명 ○ 안정적 경협추진을 위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한 입장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행사 6.15 이전 개최 -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지장물 보상비용에 대한 남측 사업자들의 의견수용 및 착공이전 5개 주요 하위규정 제정·공포 - 금강산관광 6.15 이전 재개 - 임진강수해방지 합의서 타결, 임남댐·황강댐 자료제공 - 식량·비료 지원관련 분배투명성 제고 협조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6.10경에 진행하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 개성공단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 ○ 금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예보체계 구축 ○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분배현장 언급) 작성 교환 ○ 경추위 6차 회의를 8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26</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어선 6척 NLL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 6척이 NLL을 1시간 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 고속정이 차단작전에 돌입하자 돌아갔음.
<p>2003. 5. 27</p>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 '재난' 발언 관련 유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19~23 개최된 남북경추위 제5차 회의에서 북한은 '재난' 발언에 대해 "북이나 남이나 불행하게 되지 않고 다 같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음. ○ 북한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동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23</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적대시정책에 자위적 조치로 대응’ 주장</p> <p>○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정당한 자위적 조치로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p>
<p>2003. 5. 24</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 쌍무회담후 다자회담 가능’ 입장 표명</p> <p>○ 우리는 먼저 북미 쌍무회담을 계속하여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5. 29</p> <p>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대북정책 초당적 협력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 유지, 안정적인 남북관계 관리,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투명한 정책추진이 이뤄져야함.
<p>2003. 5. 30</p> <p>제8차 남북군 사실무접촉 (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 확인계획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6.11 각각 10명의 인원이 동·서해지구 철도·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상호 확인하기로 합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2003. 5. 29 조선중앙통신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 전투함선 영해침범’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군부는 29일 05:00경부터 07:00경까지 등산곶 남쪽 우리측 영해에 경비함 1척, 11:15경에는 쾌속정 2척, 12:48경에는 경비함 1척을 연평열도 서남쪽 우리측 영해에 불법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하였음.
2003. 5. 29 아태위 대변인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6월초 재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RS로 인해 임시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을 6월초 재개
2003. 5. 30 평양방송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일 공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미국은 회담 뒤 공동성명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의 길까지 열어놓았으며 이후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강경조치를 취해기로 했음. ○ 미국과 일본과 남측 당국은 이성을 가지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임.
2003. 5. 30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 (평화의 집)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 확인계획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1</p> <p>합동참모본부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NLL 침범 북 어선에 경고 포격</p> <p>○ 6.1 오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조업하던 북한 어선들에 해군 고속정이 40mm포 등으로 경고포격을 하여 추방하였음.</p>
<p>2003. 6. 3</p> <p>교토통신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관 외교통상부장관, 한·일 북핵 다자회담 참가 당연 언급</p> <p>○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것은 불가결한 것이며 참가가 실현될 것임.</p>
<p>2003. 6. 8</p> <p>방일 중</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북 체제안정 보장 다자틀 속 마무리' 언급</p> <p>○ 대북 경제지원에는 여러나라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체제안정 보장 역시 다자간 회담의 틀 속에서 마무리 될 것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2</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대화 수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북미쌍무회담 선행을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한다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 막는 것으로 될 것임. ○ 미국은 이제라도 대화자세와 입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정당한 입장에 긍정적인 호응을 하여야 함.
<p>2003. 6. 4</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제재는 전쟁’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경제제재를 핵문제의 유일한 방도로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상대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임. ○ 우리에게 대한 제재는 곧 전쟁을 의미함.
<p>2003. 6. 8</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자주권 피침해시 물리적 보복’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집합안전보장협정’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반출입하는 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음. ○ 우리는 일단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물리적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9</p> <p>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연결행사 개최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행사는 국장급 주관하에 남북 각각 4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의를 적절히 반영하되 간소하게 진행 ○ 신호·통신·전력계통의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고 제공장비의 정상운동을 위해 정례적으로 사용현장을 방문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 50명, 행사 주관 : 국장급 ○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 보장 ○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 ○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용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 ○ 신호·통신·전력계통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 ○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9</p> <p>제5차 남북철 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연결행사 개최 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행사는 장·차관급이 주빈으로 참석하여 6.14 의의있게 진행 ○ 고장장비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문제는 동·서 각 2회씩 실시 ○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운전을 위한 기술지원도 동·서 해에서 6.20~7.10간 진행해 줄 것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12</p> <p>국회 답변</p>	<p style="text-align: center;">고건 국무총리, 남북관계 지속 유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남북관계를 지속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음. ○ 외교적 평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결정해 나갈 것임.
<p>2003. 6. 15</p> <p>오 마이 뉴스 인터뷰</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관 외교통상부장관, '현 상황하 남북정상회담 곤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이나 자세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는 것은 곤란함.
<p>2003. 6. 16</p> <p>통일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 확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10</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테러·마약밀매·납치 등 관련 대미 비난</p> <p>○ 미국이 있지도 않는 테러와 마약밀매, 납치와 화폐위조를 들면서 우리를 비법행위를 일삼는 '불량배 국가'로 몰아붙이려 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들에 대한 도전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p>
<p>2003. 6. 13</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 「유사시법」 법안 통과 비난</p> <p>○ 「유사시법」의 조작은 날로 더욱 노골성과 위협성을 부각시키는 일본의 해외침략 책동의 연장이며 그 절정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19</p> <p>4개국 상공회의소 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한 다자회담 호응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동향으로 볼 때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자 회담에 응해 올 것으로 내다봄.
<p>2003. 6. 20</p> <p>제1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동해선 통신연결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동해선 통신연결 구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p>2003. 6. 20</p> <p>대구 U 대회 조직위원장 명의 대북 서한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됨. ○ 지난 제10차 장관급회담에서 귀측의 대회참가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바, 나는 귀측 참가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17</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자주권 피침해시 보복조치 대응’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대통령이 우리에게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봉쇄 작전을 펴는 것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임. ○ 우리는 미국의 봉쇄작전으로 자주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물리적인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임.
<p>2003. 6. 18</p> <p>외무성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미 다자회담 주장은 위장물’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핵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고립 압살 행위를 가리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음. ○ 우리는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됐음.
<p>2003. 6. 20</p> <p>제1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 무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동해선 통신연결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동해선 통신연결 구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3. 6. 21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식량차관 기금 지출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대북식량차관 1,67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
2003. 6. 23 SBS 라디오 인터뷰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 장관, '북 김정일 체제 인정시 다자회담 호응'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김정일 체제 인정과 경제지원에 대한 확신이 서면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올 것임.
2003. 6. 24 서영훈 「한적」 총재 명의 대 북 전통문	<p style="text-align: center;">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해외거주가족의 참가 허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이 해외거주가족들을 상봉행사에 참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우려함. ○ 귀족이 우려하고 있는 사스문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임. ○ 이번 상봉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남북간 협력분위기를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
2003. 6. 25 자유아시아방 송 인터뷰	<p style="text-align: center;">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경수로 공사 무조건 계속도 문제'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은 공사가 시작된 이상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북한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25</p> <p>중앙방송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의 대화의지 표명 촉구</p> <p>○ 미국이 진실로 비핵화와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 북 강경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방적인 봉쇄나 압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려는 진지한 태도와 성의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27~7. 2</p> <p>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금강산)</p>	<p>서영훈 「한적」 「총재」, 북쪽에 납북자 및 실종언론인 생사확인 요청</p> <p>○ 6·25 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언론인 225명에 대한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p>
<p>2003. 6. 28</p> <p>대구U대회 조직위원장 명의 대북 서한문</p>	<p>대구U대회 실무접촉 관련 북측의 개최일자 수정제의에 동의</p> <p>○ 귀측이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관련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7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개최하고자 제의해 온 데 대해 동의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6. 27</p> <p>대학생체육협 회 위원장 대 남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유니버시아드 실무접촉 일정 수정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의 금강산 실무접촉 제의에 동의함. ○ 귀측이 제기한 일자에는 금강산에서 제7차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가 있게 되므로 실무접촉 일정을 7월 4일부터 6일까지로 수정 제의함.
<p>2003. 6. 28</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발표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1</p> <p>국회 본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당국에 제기하고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북한당국은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 북한의 인권실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함.
<p>2003. 7. 3</p> <p>국방대-고려대 공동 개최 세미나 기조 연설문</p>	<p style="text-align: center;">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 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재배치와 그 속에 내포된 의미들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임.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한반도는 전략환경이 전혀 다르고 특수작전 위주로 개편된 미군이 장차 한국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의문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1</p> <p>아태위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송금 수사결과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측에서 이른바 ‘대북송금’문제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음. ○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를 깎아 내리고 좋게 발전하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에 제동을 거는 반역사적 행위임.
<p>2003. 7. 3</p> <p>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미사일 개발·배비·수출은 자주적 권리’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의 개발과 배비, 수출은 인민의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임. ○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배비, 수출을 결코 드는 미국의 소동은 우리에게 통할 수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4</p> <p>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과주)</p>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분 자재장비 수량 및 품목 협의</p> <p>○ 수석대표 :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분 자재·장의 수량과 품목을 확정</p> <p>○ 고장장비 수리와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에 따른 기술 지원문제와 열차운행합의서 등도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 ></p> <p>○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들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합의</p> <p>-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들은 앞으로 협의 확정</p> <p>○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경의선은 7.15~17, 동해선은 7.22~24까지 실시</p> <p>-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은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p> <p>- 북측은 동·서해 비무장지대안에 대한 설계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우리측에 제공</p> <p>-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 1명, 신호·통신·전력계통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p> <p>○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은 2003년 8월초 개성에서 개최</p>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4</p> <p>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과주)</p>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분 자재장비 수량 및 품목 협의</p> <p>○ 단장 :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동시개통 ○ 동해선 남측 구간공사와 관련 강릉까지 연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전체분 자재·장비 수량과 품목에 합의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및 제공장비 기술지원문제 등도 협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4~6</p> <p>대 구 U 대 회 북측 선수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p>	<p>북측 선수단·응원단의 대구U대회 참가에 관한 실무문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선수·임원·심판진 등 200명 규모의 선수단과 310명 규모의 응원단, 기자단 19명을 파견 ○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 항공기로 직항로를 이용하여 오며,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 사용 ○ 남측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 ○ 북측 참가인원에 대한 편의보장·국기계양 문제 등은 부산아시안 게임 선례 적용
<p>2003. 7. 7</p> <p>한중정상회담 (북경)</p>	<p>한·중, 북핵문제 해결 위한 당사자간 대화 개시 필요성 공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간 대화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당사자간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4~6</p> <p>대 구 U 대 회 북측 선수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p>	<p>북측 선수단 · 응원단의 대구U대회 참가에 관한 실무문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3. 7. 6</p> <p>조평통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적’ 표현 관련 남측 군당국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측 국방부는 일선부대들에 배포한 정신교육 교재에서 우리 정권과 군과 주민 모두를 ‘주적’이라고 규정하였음. ○ 남측 군당국자들의 ‘주적론’ 발표놀음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과 내외여론에 대 한 엄중한 도전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9~12</p> <p>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북한의 핵개발 불용,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NPT 복귀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안도 제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모색 ○ 제8차 이산가족상봉 실시(추석계기, 금강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 ○ 경추위 제6차 회의 개최(8.26~29, 서울)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문제 검토 ○ 민간단체들의 8.15 광복절 행사 적극 지원 ○ 제12차 장관급 회담 개최(10.14~17, 평양)
<p>2003. 7. 14</p> <p>KBS1 라디오 인터뷰</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모멘텀 유지 바람직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나 교류협력사업은 모멘텀을 유지하는게 좋다는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9~12</p> <p>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6.15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공조를 해나가자고 주장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3. 7. 11</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러시아 정부의 대북식량지원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정부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천만 달러 상당의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보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17</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DMZ내 총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 새벽 06:10경 중부전선 DMZ내에 위치한 북한군 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해 4발의 기관총 총격을 가해 왔으며, 우리측은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17발의 기관총 대응사격과 동시에 경고방송을 실시하였음.
<p>2003. 7. 18</p> <p>황영수 국방부 대변인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군 DMZ 총격사건(7.17) 조사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의 응사 뒤 북한군의 추가동향이 없는 등 오발 가능성이 높지만 의도성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공식 항의할 것임.
<p>2003. 7. 22</p> <p>경북도지사가 함경북도·라선시 인민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문</p>	<p style="text-align: center;">2003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서는 2003 동북아 Business촉진회의를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함. ○ 이번 회의에 귀시의 대표단이 참석해주기 바라며, 참가신청서를 8월 10일까지 보내주기 바람.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18</p> <p>조평통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작전계획 5030’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계획 5030’은 이미 작성 발표된 ‘작전계획 5027’을 보충 완성한 새로운 침략전쟁계획으로서 미국이 ‘이라크 다음은 조선반도’라고 한 전쟁폭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임. ○ 미국은 무모한 ‘작전계획 5030’을 당장 철회하여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22</p> <p>「한적」 총재 대북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차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장관급회담에서 추석을 계기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아울러 이산가족면회소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수 있기를 희망함.
<p>2003. 7. 24</p> <p>통일고문회의 대북정책 현 안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다자회담 조만간 개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황은 다자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 가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 다자회담이 열릴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잡았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23</p> <p>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비망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정전협정 핵심조항 파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 관문점 대표부는 정전협정체결 50돌을 맞아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과 제60항을 비롯한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파괴 유린함으로써 한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몰아온 미국의 행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비망록을 발표한다고 주장
<p>2004. 7. 24</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은 정전협정 위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미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새로운 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고 우리에게 대한 해상 및 공중봉쇄를 실천단계에 옮기고 있으며 ‘작전계획 5030’까지 내돌리고 있음. 이것은 완전한 정전협정 파기행위임.
<p>2003. 7. 25</p> <p>장재언 「북적」 중앙위원장 전총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측의 대북 비료지원 20만톤에 대해 사의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귀사의 인도주의적 협조로 비료 20만톤 수송이 완료된 것과 관련하여 사의를 표함. ○ 북과 남은 앞으로도 상부상조 하는 민족의 미풍양속을 잘 살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30</p> <p>민주평통 상임 위원회 보고</p>	<p>정세현 통일부장관, 핵문제 해결 인내심 필요 언급</p> <p>○ 다자회담이 시작되더라도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30</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포커스렌즈’ 취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달 18일부터 벌일 계획인 ‘을지포커스렌즈’ 합동 군사연습을 당장 취소하여야 함.
<p>2003. 7. 30</p> <p>김령성 남북 장관급 회담 단장 대남전 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방송 중단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남측에서도 대북방송들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p>2003. 7. 31</p> <p>김령성 남북 장관급 회담 단장 대남전 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취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미국과 함께 전쟁연습을 하는 조건에서 쌍방이 합의한 남북관계 일정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는지 우려를 가짐. ○ 정세를 악화시키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취소해야 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31</p> <p>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경협합의서 발효 및 후속조치 관련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김성진(재경부 경제협력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경협합의서 발효 절차 마무리 ○ 원산지확인 절차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 산업표준·산업재산권 등의 제도적 장치의 확충 ○ 통행·투자 등 경제협력 관련 법령의 상호 교환 제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관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호와 서명권자의 직책을 명시하기로 구두합의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합의서까지 일반결제업무도 담당(구두합의)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발급 및 확인요청과 통보기관에 대해 쌍방 당국이 권한있는 기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상호 통보(구두합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7. 31</p> <p>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4대 경협합의서 발효 및 후속조치 관련 문제 협의</p> <p>○ 단장 :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 원산지 확인, 통행합의서 채택만 협의하고, 기타 사안은 차후에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p> <p>정세현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 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관련 대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 목적의 훈련임. ○ 북측이 이 문제를 쌍방간 합의사항 이행과 연관시키려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p>2003. 8. 2</p> <p>정세현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 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방송 중지 요청(7.30) 관련 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송문제는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여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6자회담 개최 제안 사실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1 뉴욕에서 북미사이의 핵문제에 대한 회담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음. ○ 미국은 얼마 전에 제 3자를 통하여 다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쌍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왔음. ○ 우리는 이번 북미접촉에서 3자회담을 거치지 말고 바로 6자회담을 개최하며 거기에서 북미쌍무회담을 진행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음.
<p>2003. 8. 2</p> <p>관문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대구U대회 참가신청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대학생체육협회 전국만 위원장을 총대표로 한 189명의 참가 선수 및 임원단 명단을 대구U대회 조직위에 제출
<p>2003. 8. 5</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6자회담 성과 미국의 태도 여하가 변수'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6자회담이 어떻게 열리고 거기에서 문제토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음. ○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는가 안버리는가 하는 것은 회담의 결실여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6</p> <p>열린통일포럼 (울산)</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남북경협 조만간 재개 전망</p> <p>○ 정몽헌 회장의 타계로 남북경협이 잠정 중단되고 있으나 고인의 뜻이 금강산 활성화였고 이를 북측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곧 재개될 것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5</p> <p>제58주년 광복절 경축사</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북핵 포기시 경제개발 지원 언급</p> <p>○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이웃 나라들과 협력해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 들일 것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6자회담 관련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첫째 입장은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명백히 확인하자는 것임. ○ 둘째는 미국측에 그 어떤 선사품으로서의 안전담보나 체제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서로 공격하지 마는데 대해 법적으로 담보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임.
<p>2003. 8. 14</p> <p>장재언 북적 중 앙 위 원 장 대남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우리측 제의 일정에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오는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는데 동의함. ○ 8월 16일 상봉후보자 200명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9월 2일 회보서를 교환하며 9월 5일 최종상봉자 100명 명단교환을 제의함. ○ 면회소 건설문제는 제3차 상무조 접촉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지되, 이번접촉에서 면회소 규모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타결짓기를 기대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6</p> <p>김윤규 현대 아산 사장</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육로관광 재개 합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육로관광을 9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북측과 최종 합의했음. ○ 육로와 해로 관광이 함께 이뤄지며 육로로 갔던 관광객이 해로로 돌아오고 해로로 갔던 관광객이 육로로 귀환하는 등의 관광경로 다양화에 대해서도 북측과 합의했음. ○ 금강산관광 특구의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으며 온정리와 고성읍 등 북측 주민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북측 교예단의 남한 순회공연 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3</p> <p>조평통, 민화협</p>	<p style="text-align: center;">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정치쿠데타 음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파쇼세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세력을 누르기 위한 각종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친미보수, 냉전수구세력을 규합하는 등 정치쿠데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음. ○ 남조선의 현 시국은 한나라당을 용인하는가 아니면 그와 결별하는가 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 ○ 모두 다 한나라당의 정치쿠데타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총 걸기하여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8</p> <p>정세현 남북 장 관 급 회 담 남측 수석대표 대북 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대구U대회 불참시사 관련, 대회참가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이번 8·15 광복절 계기 일부 민간행사를 이유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음. ○ 귀측의 참가 지연은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나는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합의사항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귀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기대함.
<p>2003. 8. 19</p> <p>정세현 통일부 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8·15 행사시 인공기 소각 사건 관련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민간행사에서 있었던 일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함. ○ 지난 17일 북한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이 확실히 전달된 만큼 늦기는 했지만 북측도 당초 일정대로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참가, 남북화해협력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힘을 합쳐 나가기 를 바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17</p> <p>조평통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8·15 대회시 보수세력의 만행 규탄 및 대구U대회 불참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8월 15일 서울에서는 극우 보수세력이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공화국기를 찢고 태우고는 우리체제까지 모독하는 망동을 부리었음. ○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때에 남조선에서 이러한 소동이 벌어진 것은 극히 엄중한 중대 도발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번 난동을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심히 중상모독한 소동으로서 6·15공동선언을 짓밟는 반민족적 만행으로 준렬히 규탄함. ○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도발이 감행되는 형편에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고도의 각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 ○ 당면하여 대구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음. ○ 남조선당국은 이번 8·15도발사태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공식적인 사죄부터 똑똑히 해야 함.
<p>2003. 8. 19</p> <p>조선중앙 TV</p>	<p style="text-align: center;">‘불가침조약 공식선언’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우리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결심이 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와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공식선언해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0</p> <p>내외신 주례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6자회담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감안 언급</p> <p>○ 6자회담은 북핵 해결의 장이지만 북핵 해결 후에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음.</p>
<p>2003. 8. 20</p> <p>판문점 연락관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4대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 교환</p> <p>○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p>
<p>2003. 8. 20</p> <p>김운용 IOC부 위원장-장웅IOC 위원 공동기자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태권도 통합문제 협의</p> <p>○ 아테네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양측 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음.</p> <p>○ 또한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김운용)과 국제태권도연맹(ITF, 회장 장웅)간의 규정 차이와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할 공동실무위원회도 구성키로 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1~23</p> <p>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3 차 회의(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면회소 건설 관련 실무문제 합의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회소 규모는 필수 구성요소들을 확정된 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3,039명으로 1천명을 충분히 수용 가능함을 강조 ○ 착공식은 규모와 필수 구성요소가 합의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제시 ○ 관리·운영문제는 면회소 완공전이라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 <p>※ 상호 양보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을 모색하였으나, 규모 및 시설관리·운영 등 면회소 건설의 필수적 사항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도출 실패</p>

복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1~23</p> <p>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3 차 회의(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 면회소 규모 1만5천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회소 규모 1만 5천평 ○ 착공식은 면회소 규모 등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9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실시 ○ 면회소 운영방안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완공 1개월 전 확정
<p>2003. 8. 22</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44호</p>	<p style="text-align: center;">‘핵억제력 불포기’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의 성패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미국은 적대감을 버리려는 의지를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함. ○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대화의 막 뒤에서 계속 북침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1~22</p> <p>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자재·장비 제공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분 자재·장비를 10월부터 제공하되, 노동용품·유류품 등은 우선 제공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치는 남북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 추가 기술지원 일정을 확정하고 임시도로 대신 본도로 노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범위도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진행,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협력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10월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 ○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경의선·동해선 본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반을 이용하는 문제 검토 ○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 : 경의선 9. 1~6, 동해선 9.16~필요한 기간 진행, 남측 기술인원들은 경의선 5~6명, 동해선 7~8명 - 제공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 동해선 9. 1~7, 경의선 9.16~25 진행, 남측 기술인원은 각각 7명 정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1~22</p> <p>제6차 남북철 도 · 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전체분 자재 · 장비 제공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분 자재 · 장비를 조속히 제공해 줄 것 ○ 콘크리트혼합장 설치 · 운영과 공장수리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4</p> <p>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p>	<p>여, 대구 U대회 '북측기자단-시민단체 총돌' 관련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대학생들의 스포츠 무대를 이념적으로 접근해 정치무대로 변질시키는 것은 남과 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 특히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 젊은이들을 초청한 주인 입장에서 정치색 짙은 용어를 동원해 손님인 북한선수들을 자극하는 것은 성숙한 행동으로 볼 수 없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4</p> <p>북측 대학생 체육협회 대 표단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U대회 북측 기자단과 남측단체간의 충돌 관련 남조선 당국의 사죄 및 범죄자 처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 <민주참여 네티즌연대>와 <자유시민연대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단체 성원과 독일인 폴로첸은 대구기자센터 앞에서 공화국을 증상하고 모독하는 광기를 부리었음. ○ 우리는 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합과 통일로 나아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함. ○ 남측은 마땅히 지난 8.15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자기가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나 이번에도 반공우익단체들의 반공화국집회를 저지시키고 해산시킬 대신 그것을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보호해 주기까지 하였음. ○ 우리는 지금과 같이 수백명의 경찰이 진을 치고 보호하는 속에 반공화국집회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한 경기대회의 참가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음. ○ 남측은 이번 사건에서 응당한 책임을 지고 주동분자를 즉시 처벌하며 우리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담보해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3. 8. 25	우리측 보수단체와 북측 기자간의 일부충돌에 대해 유감 표명
조해병 대구U 대회 조직위원 장 대북 성명	○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의 장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 조직위원회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2003. 8. 26	북 경비정 NLL 침범
합동참모본부 발표	○ 금일 07:02경 연평도 서방 12마일 해상에서 200t급 북한 경비정 1척이 NLL 0.3마일 남쪽으로 침범, 우리 해군 초계함의 경고사격을 받고 3분만에 북상하였음.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4</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4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기국, 북측기자단-시민단체 총돌사태 관련 남한당국의 사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이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성을 잃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를 반민족,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단호히 규탄함. ○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감행된 반공화국 도발사건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적인 담보를 해야 할 것임.
<p>2003. 8. 24</p> <p>중앙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송금 관련자 석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전원 무죄석방을 촉구하며 남한 당국이 이를 묵인한다면 북남관계에 미치게 될 후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8</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3대 경협사업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광림(재경부 차관)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 개성공단 건설 관련 하위규정의 조기 제정·공포 ○ 금강산관광 특구경계 확정 및 하위 규정 공포, 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 10월중·식량분배현장 방문 9월중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 ○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데 따라 기반 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문서교환 협의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경추위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 ○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 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감. ○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함. ○ 경추위 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8</p> <p>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3대 경험사업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 협의</p> <p>○ 위원장 :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올해말까지 개성-문산, 온정리-저진간 철도 궤도 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동시에 완료</p> <p>○ 남측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부구조망 건설에 착수</p> <p>○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 및 부속합의서의 토의 진행</p> <p>○ 전력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전력망 형성 문제와 가스관 부설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30</p> <p>SBS 라디오 출연</p>	<p>리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향후 6자회담 전망 긍정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회담 전망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이며 다시 베이징에서 열자는 데 암묵적으로 의견이 접근했음. ○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보유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한 진전임. ○ 6자회담은 지난 54년 제네바회담 이래 처음으로 남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이 한자리에 앉아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면서 냉전시대의 블록대 블록으로서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의지와 원칙적 접근이 돋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p>2003. 8. 31</p> <p>현대아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관광 예정대로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아산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예정대로 재개되며 9.1 육로를 통해 328명, 해로를 통해 106명이 금강산 관광을 떠난다”고 발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8. 29</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6자회담 기초발언 내용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7 베이징에서 개막된 북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각 대표단 단장들의 기초발언이 있었음. ○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보장이 우리의 목표라는 시종일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동시행동원칙 등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였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1</p> <p>통일의교통상위 답변</p>	<p style="text-align: center;">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6자회담 지속 개최 공감대 형성 언급</p> <p>○ 6자회담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사국 간에는 2~3개월 안에 후속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p>
<p>2003. 9. 4</p> <p>열린통일포럼 (광주)</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 장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 추진 언급</p> <p>○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후속회담 준 비와 관계국간 협의를 계속해나가면서 남북대화외 교 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1</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핵억제력 방위적 성격’ 주장</p> <p>○ 우리의 핵 억제력은 현 정세하에서 미국의 핵선제 공격과 무력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적 성격임.</p>
<p>2003. 9. 3</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 진행</p> <p>○ 제11기 대의원 총 686명 중 670명이 참석, △국방위원장 재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조·미 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의무성이 취한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 등 3개 의안 토의 및 결정</p>
<p>2003. 9. 7</p> <p>장재언 「북적」 중앙위원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가을철 비료 10만톤 지원 요청</p> <p>○ 귀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원칙에서 올해 봄철 비료 20만톤을 보내주었음.</p> <p>○ 나는 귀측의 이러한 성의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며, 가을철 비료 10만톤을 9월중에 보내줄 것을 희망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13</p> <p>현대아산</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 문광위 위원 방북</p> <p>○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5명은 현대 아산 주최 관광 사업 간담회 등 참석차 금강산 지역을 방문(9.13~15)</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8</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6자회담에서 미국의 평화조약 용의표명은 거짓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이 지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우리가 핵시설의 폐기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단계적인 제재완화로부터 최종적인 평화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하면서 ‘대북접근에서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돌리고 있음. ○ 이것은 모처럼 마련되었던 6자회담을 파탄으로 몰아간 미국이 그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함.
<p>2003. 9. 13</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선박 나포 행위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다국적 무력을 동원하여 오스트랄리아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단속, 나포하는 공중 및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음. ○ 이번 공동군사연습은 다국적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선행 군사작전임.
<p>2003. 9. 16</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북·일 관계 후퇴’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일 평양선언의 발표로 두 나라 관계는 전환기적인 개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지난 1년간 두 나라 관계가 오히려 선언 발표시점에서 크게 후퇴하여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놓여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17</p> <p>제8차 남북군 사실무회담</p>	<p>「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2003. 1. 27 체결한 잠정합의서 제1항을 수정·보충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된 새로운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 ○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 10m, 서해 20m)을 개방, 이미 사용하던 임시도로상의 10m 구간들은 폐쇄
<p>2003. 9. 22</p> <p>제11기 민주평 통 자문회의 전체회의 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 해결시 북한 개방 위해 국제사회 협력 유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17</p> <p>제8차 남북군 사실무회담</p>	<p>「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2003. 1. 27 체결한 잠정합의서 제1항을 수정·보충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3. 9. 20</p> <p>장재언 「북적」 중앙위원장 대남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태풍 매미 피해 관련 위로 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귀측의 여러지역에서 심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동쪽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시하는 바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26</p> <p>서울지법 형사22부 판결</p>	<p>법원,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통치행위 불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송금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주관적·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송금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볼 수 없음.
<p>2003. 9. 29</p> <p>정세현 남북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p>국회 문광위 위원 방북 추진 관련상황 대북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제기(9.27)한 문제는 사실과 다름. ○ 문광위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석과 통일농구대회 참관을 위한 것이며, 방북 기회를 활용하여 평양과 개성 등지의 문화재를 답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
<p>2003. 9. 29</p> <p>통일부</p>	<p>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과 경로 등과 서명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9. 27</p> <p>김령성 남북 장관급 회담 단장 대남전 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위 위원 방북추진 관련 입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국회 관광위가 10.6~9 이른바 '방북국정감사'라는 것을 벌이겠다는 것을 발표하였음. ○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모독이고 우리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며 호상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확약한 북남합의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임.
<p>2003. 9. 29</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시기 대결구도의 산물임. ○ 미국은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의사를 지체없이 표명하여야 하며 우리와 쌍무적인 불가침조약을 채택하는데로 나와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5 통일부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98년 이후 금강산관광객 총수 발표</p> <p>○ '98년 이래 금강산 관광객이 총 53만 8천명으로 집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p> <p>평양방송</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및 세금규정 발표</p> <p>○ 개성공단 진출 남측기업이 부담할 1인당 인건비는 최소 미화 57.5\$, 기업소득세는 14%로 결정</p>
<p>2003. 10. 3</p> <p>외무성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p> <p>○ 우리는 이미 공개한 대로 연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고 흑연감속로의 건설준비를 추진하는 등 평화적인 핵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8,000여대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음.</p>
<p>2003. 10. 3</p> <p>조선중앙통신</p>	<p style="text-align: center;">폐연료봉 재처리 6월말 완료</p> <p>○ 우리나라 평화적 핵시설들은 정상운영되고 있음. ○ 평화적 핵활동 재개의 일환으로 그간 봉인되어 있던 8,000여대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는 이미 6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났음.</p>
<p>2003. 10. 6</p> <p>김령성 남북 장 관 급 회 담 단장 대남전 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장관급회담 대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교체</p> <p>○ 북남상급회담 김만길·조성발 대표 대신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과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대표를 맡게 되었으며,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을 맡게 되었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2003. 10. 7 통일의교통상 위 국정감사 답변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 장관, 북한 핵물질 보유 관련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한국과 미국정부는 북한이 핵물질 12kg정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2003. 10. 9 통일부대변인	<p style="text-align: center;">철도·도로장비 추가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자재·장비 6천만달러 추가 차관 지원
2003. 10. 11 제2차 남북해 운협력실무접 촉(금강산)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운합의서」 채택·가서명 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해양사고시 상호 협력 ○ 선박의 통신보장 ○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2003. 10. 11 제3차 남북해 운협력실무접 촉(문산)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부속합의서 채택과 관련, 경제성과 안정성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해상 항로대 설정, 해양사고 발생시 공동 구조·구난, 북한측 항만 정박시 직접통신 필요성을 제기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7</p> <p>조선중앙통신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서면 안전보장 무용’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 미 국무성 차관보 켈리가 일본자민당 정무조사 회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약속을 문서화할 수는 있으나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음. ○ ‘서면 안전담보’란 부시 행정부가 우리에게 침공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법적 담보도 줄 수 없는 빈 종이 장에 불과한 것임.
<p>2003. 10. 11</p> <p>제2차 남북해 협력실무접 촉(금강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운합의서」 채택, 가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2003. 10. 11</p> <p>제3차 남북해 협력실무접 촉(문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상대측 영해 통과 허용, 쌍방 항구간 항로의 최단거리 설정 등을 주장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2</p> <p>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 회 제3차 회의 (과주)</p>	<p style="text-align: center;">통행합의서 및 상사중재위 구성·운영문제 협의</p> <p>○ 수석대표 : 임영록(재경부 경제협력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 「개성·금강산지구 통 행」, 「원산지확인」 합의서 및 법령교환문제 협의</p> <p>○ 2004년 초 청산결제 실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청산결제 한도, 대상품목과 한도, 신용한도와 이자율 등의 협의</p> <p>○ 통행문제와 관련 “질서위반자는 남측지역으로 강제송 환하며 그에 대한 조사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 다”라는 수정(안)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p>○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p> <p>○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운영 -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 대상에 대하여 11월 중순에 원산 지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p> <p>○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은 차기 회의에서 협의</p> <p>○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2</p> <p>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 회 제3차 회의 (과주)</p>	<p style="text-align: center;">통행합의서 및 상사중재위 구성·운영문제 협의</p> <p>○ 단장 :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통행합의서 중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북측의 주권침해를 비롯하여 범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북측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고수</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4~17</p> <p>제12차 남북 장관급 회담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핵불용 및 평화적 해결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측이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강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 ○ 진행 중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 ○ 경추위 제7차 회의 개최(11월초, 평양)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2. 3~6, 서울)
<p>2003. 10. 15~19</p> <p>남북방송인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개최</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방송교류협력 확대추진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인 토론회 및 방송영상물 소개모임 정례화 ○ 남북방송 용어집 발간 ○ 방송기술 교류 활성화 ○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공동방송(중계)단 구성 ○ 날씨 프로그램 매일 교환 ○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 드라마 등 공동제작 <p>※ 북측도 우리측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송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기로 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4~17</p> <p>제12차 남북 장관급 회담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문제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남북민간교류가 활발하다고 평가하면서도 8.15 행사 등에서의 북한체제 비난문제, 개성공단 공사부진, 이산가족면회소 협의문제 부진 등을 제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7</p> <p>통일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 현지에 신규 숙박시설 설치사업 승인</p> <p>○ 통일부는 금강산 현지에 펜션 34개동과 원형천막 20개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 숙박시설 설치사업을 승인</p>
<p>2003. 10. 20</p> <p>한미정상회담 (태국 방콕) 공동언론발표 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제공 등 합의</p> <p>○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03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포괄적이고 역동적 동맹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에 대한 만족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미동맹관계 강화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제공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한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등 4개항을 담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공식 발표</p>

부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18</p> <p>외무성 대변인 답화</p>	<p style="text-align: center;">‘핵억제력 강화 실물 증명’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의하여 북미기본합의문이 일방적으로 전면파기된 상황에서 우리만이 합의문 이행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게 되었음. ○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대응조치로서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핵활동에 다시 들어간 것임. ○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되게 될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22</p> <p>한국관광공사</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 관광 지역에 시설물 관리사무소 개설</p> <p>○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지역에 투자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금강산 온천장 2층에 사무소를 개설</p>
<p>2003. 10. 24</p> <p>국방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재북 생존 국군포로 500명선 집계</p> <p>○ 금년 10월 현재 생사여부와 신원이 파악된 전체 국군 포로는 1,186명이고 이중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포로는 500명선임.</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28</p> <p>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폭약·유류 등 긴급자재 제공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이 긴급 요청한 폭약은 사용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유류 제공량 확대 등은 수요량 검토 필요 ○ 기술지원은 11월말부터 계속 진행 ○ 임시도로의 이용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 1차 사용현장방문을 경의선 11.8, 동해선 11.5 실시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12.15~21, 동해선은 12.6~12 각각 실시 ○ 철도·도로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경추위 제7차 회의에서 협의 ○ 제8차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경추위 제7차 회의에서 협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28</p> <p>제7차 남북철 도·도로연결실 무접촉(개성)</p>	<p style="text-align: center;">폭약·유류 등 긴급자재 제공 문제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약은 남측이 현장확인 후 필요한 폭약량을 폭파 장소, 발파량을 고려 주 1-2회 정도 제공 ○ 기술지원은 12월중에(동해선:12.6~12, 경의선:12.15~21) 경의선·동해선 공사현장 상호방문은 11월 중순에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28</p> <p>「한적」 총재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p> <p>○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를 비롯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2003. 10. 30</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경비정 NLL침범</p> <p>○ 연평도 서방 6.5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NLL 남방 0.5마일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10분만에 북상</p> <p>○ 당시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근해 NLL 선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6척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월선한 것으로 보이며, 함포 사격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음.</p>
<p>2003. 10. 31</p> <p>제2회 제주평화 포럼 기조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노무현 대통령, 북핵포기시 경제지원 적극 강구 표명</p> <p>○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의 협력,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p>
<p>2003. 10. 31</p> <p>「한적」 총재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관련 북측의 개최일자 수정제의에 동의</p> <p>○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갖자는 귀측 수정제의에 동의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0. 31</p> <p>조선인민군 해군 사령부 대변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조선 군부의 '북 해군경비정 침범' 주장은 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해군경비정이 연평도근해의 북방한계선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 남방 0.5마일까지 침범하였다가 저들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는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 언론을 통한 보도는 황당무계한 날조임. ○ 우리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남조선 군부가 그것을 걸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대면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는데 대하여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4~6</p> <p>제5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p>	<p>금강산면회소 우리측의 전담건설 및 전담관리 방안에 최종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회소 건설기간, 부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간 : 착공후 1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 부 지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 - 규 모 : 연건축면적은 6,000평(20,000㎡), 추후 증축 가능 ○ 설계, 복측 인력·자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전담 건설, 계획 설계시 북측의 의견 최대한 고려 - 인력·자재 :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 보장(유상) ○ 신변안전과 편의 및 자재·장비 반출입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는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 건설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 보장 ○ 법적·행정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각기 자기측 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 ○ 착공식은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 ○ 시설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은 면회소 완공 후 관리·운영 전담 - 면회사무소 : 각기 300평 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 면회 운영문제 등 협의 - 북측 면회사무소 건설은 남북이 협의하여 진행 -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 - 면회소는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 ○ 연락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 마련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4~6</p> <p>제5차 남북적 십자회담(금 강산)</p>	<p>금강산면회소 우리측의 전담건설 및 전담관리 방안에 최종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 합의 내용 ></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6</p>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 공사장비 등 반출 불허조치 철회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수로 공사장비 등 반출 불허 조치(11.6)는 인력과 장비에 관한 KEDO와 북한간에 맺은 경수로 공급협정과 의정서를 위반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함.
<p>2003. 11. 8</p> <p>한국토지공사</p>	<p style="text-align: center;">「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서」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공사는 개성 현지에서 「개성공업지구 개발 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6</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 건설 설비·장비 등 반출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행정부는 경수로 건설중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공식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함. ○ 미국과 케도는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임. ○ 이 문제가 낙착되기 전에는 경수로건설을 위하여 금호지구에 들여온 장비, 설비, 자재와 기술문건들의 모든 반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
<p>2003. 11. 7</p> <p>조평통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사 해체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항구적인 식민지 지배야망과 우리에게 대한 침략망상을 버리고 연합군사령부와 함께 미군과 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함.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8</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직거래협회사무소 개설문제 등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광림(재경부 차관)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 개성공단 분양가를 낮출수 있도록 북측의 전향적 조치 촉구, 통행합의서를 조속히 채택 ○ 직거래확대를 위한 협회사무소를 2004년 3월중 개성지역에 설치 ○ 경제시찰단 교환방문 ○ 서해어장에서의 제3국어선 불법어로 공동대처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은 12.8, 동해선은 12.2 상호 현장 방문 ○ 개성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 되도록 관련 하위규정의 제정·공포, 100만평 개발 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건설에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개발 ○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회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 ○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경험제도 4차 회의를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 ○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가짐 ○ 경추위 제8차 회의를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8</p> <p>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직거래 협의사무소 개설문제 등 협의</p> <p>○ 위원장 : 최영건(건설전재공업성 부상)</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경협사업의 선차적인 문제인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p> <p>○ 철도·도로연결 공사현장 방문을 11월중에 실시</p> <p>○ 개성공업지구 건설관련 금년 중 1단계 개발지역에 대한 하부구조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측 당국이 적극 협력</p> <p>○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결제분과 구성 및 임진강수방·해운합의서의 타결·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문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12</p> <p>경수로기획단</p>	<p>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관련 언급</p> <p>○ KEDO 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 건설사업의 1년 기한 일시 중단'을 11.6 공식 결정하고 12월 초순경부터 공사중단에 들어갈 예정임.</p>
<p>2003. 11. 14</p> <p>제9차 남북군사실무접촉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규모 합의</p> <p>○ 남과 북은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의 규모(3.5평)와 형태에 합의</p>
<p>2003. 11. 15</p> <p>한미원로협의 회 초청 강연</p>	<p>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6자회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 필요성 언급</p> <p>○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사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11</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경수로건설 ‘불이행’ 위약금 지불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도를 대표하는 미국은 경수로건설을 의식적으로 지연시키고 전면 중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입힌 엄청난 전력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음. ○ 미국은 경수로제공협정의 해당조항에 따라 대상건설을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 즉 위약금을 지체없이 지불하여야 함.
<p>2003. 11. 14</p> <p>제9차 남북군 사실 무접촉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규모 의견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의 규모(3.5평)와 형태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
<p>2003. 11. 16</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적대시정책 철회시 핵계획 포기 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회되고 우리에게 대한 위협이 실천적으로 제거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계획을 실지로 포기할 용의가 있음.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21</p> <p>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 및 통외통위 연석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조영길 국방부장관, 용산기지이전 연내 타결 노력</p> <p>○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잔류부지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있으나 연말까지 이전문제를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음.</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19</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비난</p> <p>○ 미국이 남한 주둔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북침을 위한 군사적 조치임.</p>
<p>2003. 11. 20</p> <p>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 위원회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남조선 당국의 비전향장기수 금강산관광 불허 비난 및 송환 촉구</p> <p>○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유독 비전향장기수들에게만 허용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행위임.</p> <p>○ 이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문제는 북과 남 사이에 시급히 풀어야 할 초미의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6.15 공동선언에 뚜렷이 밝혀져 있는 현안으로 되고 있음.</p> <p>○ 남조선당국은 비전향장기수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 해주어야 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당사자들이 바라는 대로 하루빨리 그들 모두를 우리 공화국 북반부로 무조건 돌려보내야 함.</p>
<p>2003. 11. 21</p> <p>조선중앙통신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발언 비난</p> <p>○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아시아 방문중 우리에게 대해 '악'이요 '악의 정권'이요 하는 발언을 하였음.</p> <p>○ 이런 발언이 부시행정부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6자회담 전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24</p> <p>제2차 동해선 통신선 연결 실무접촉(동해선 도로연결지점)</p>	<p style="text-align: center;">동해선 통신선 연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군사적보장합의서」(‘02.9.17) 제4조 4항에 따라 동해지구 쌍방 공사현장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유선통신 2회선을 2003.12.5 연결하기로 합의 ○ 통신선 연결지점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 도로지점 동측으로 하고, 쌍방이 각각 군사분계선 후방 250m 지점에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함 사이를 통신 케이블로 연결하기로 합의
<p>2003. 11. 27</p> <p>외교통상부</p>	<p style="text-align: center;">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2차 6자회담 공동문서 채택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중이 2차 6자회담에서 문서로 된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최근에 진행하여, 한·미·일 3국 간에는 조율을 거쳤으며, 이를 곧 중국과 협의할 계획임.
<p>2003. 11. 28</p> <p>제10차 남북 군사실무접촉(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근무인원 문제 의견 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남북관리구역내에 설치될 경비초소 근무인원(3명)에 대하여 의견 일치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1. 24</p> <p>제2차 동해선 통신선 연결 실무접촉(동 해선 도로연 결지점)</p>	<p style="text-align: center;">동해선 통신선 연결 합의</p> <p>○ 좌 동</p>
<p>2003. 11. 28</p> <p>제10차 남북 군사실무접촉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근무인원 문제 의견 일치</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p> <p>외교통상부 대 변인 브리핑</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일 3자 비공개 협의 계획 발표</p> <p>○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2.3~5간 미국을 방문, James Kelly 미 국무부 차관보와 차기 6자회담에 대비한 공동 대응 방향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방미 기간 중 James Kelly 차관보와 야부나카 미토지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12.4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비공식 협의를 가질 예정임.</p>
<p>2003. 12. 4</p> <p>주한외교단 초 청 오찬연설</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관 외교통상부장관, 포괄해법 마련시 북핵 포기 가능 견해 피력</p> <p>○ 6자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외교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해법을 구상해낸다면 북한은 핵 야망을 포기할 정도로 안심할 수 있을 것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1</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비핵화 관련 동시행동원칙’ 강조</p> <p>○ 한반도 비핵화는 말 대 행동이 아니라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에 따르는 행동 대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5</p> <p>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속초)</p>	<p style="text-align: center;">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확정 및 기술협력 실시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와 동해선 교량상판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협력 실시 ○ 폭약, 휘발유, 난방기, 발전기 등 추가 자재·장비 제공에 따라 전체분 품목과 수량 조정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확정, 2004년 2/4분기부터 공사 착수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 지원을 정의선은 2004.1.27~2.5, 동해선은 1.8~17 실시, 향후 기술지원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협의를 통해 확정 ○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 ○ 남측은 동해선 북강, 남강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 북측은 현장 기술협회가 이루어지도록 협력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협의회는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결정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5</p> <p>제8차 남북철 도·도로연결 실무접촉(속초)</p>	<p>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확정 및 기술협력 실시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시 감호·판문역에 입환 표지를 추가해 주고 궤도회로 설계에 향후 전철운행을 고려하고, 각 역에 근거리 통신망용 컴퓨터 등을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합의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10</p> <p>내외신 기자 회견</p>	<p>운영관 외교통상부장관, 2차 6자회담 연내 개최 단언 곤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해결과 관련한 정부의 목표는 6개국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을 준비해 2차 6자회담을 개최토록 하는 것임. ○ 그러나 북한이 2차 6자회담의 연내 개최에 동의할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움.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6</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 위성발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2개를 탑재한 주력로켓 'H-2A' 6호기를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지난해와 그 전해에도 대형 운반로켓 'H-2A'를 발사하였음. ○ 이러한 행위는 조일 쌍방이 서로 타방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고 한 「조일평양선언」에 대한 위반임.
<p>2003. 12. 9</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핵문제 관련 첫단계 행동조치 합의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을 핵문제 해결의 근본방도로 내놓았음. ○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일괄타결안을 한번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다음번 6자회담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 단계의 행동조치라도 합의하자는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14</p> <p>합동참모본부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중 북 선박 23회 NLL 월선</p> <p>○ 2003년중 북측 선박의 NLL월선은 23차례로, 어선 12차례, 목선 및 철선 2차례, 예인선 및 전마선 2차례, 경비정이 2차례임.</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15</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 수용’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유관측들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때임. ○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생명이며 북미사이에 합의해야 할 핵심사항이라는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임.
<p>2003. 12. 15</p> <p>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5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조선 경찰 당국의 통일련대 사무처장 구속을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구속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민련남측본부 전 의장 리종린을 연행하여 조사하였음. ○ 6.15시대에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
<p>2003. 12. 18</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북 위협정책 계속시 핵억제력 강화 입장 불변’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에 도리질을 하면서 대북 핵위협압살정책을 계속 강행하는한 우리는 핵억제력 강화 입장을 절대로 달리하지 않을 것임.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0</p> <p>원산지확인실 무협의회 제1 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확인 세부기준에 대한 합의서」 협의</p> <p>○ 수석대표 : 손병조(관세청 통관지원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민경련이 발급한 증명서라 하더라도 세부판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북한산으로 인정 불가한 만큼 판정기준 세부 마련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p>○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협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p> <p>○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 - 통보내용으로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수송수단 등을 포함</p> <p>○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목록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p>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0</p> <p>원산지확인실 무협의회 제1 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확인 세부기준에 대한 합의서」 협의</p> <p>○ 단장 : 김응섭(민족경제협력연합회 책임참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남북 원산지 합의서」 제4조 제2호의 열거규정만으로도 원산지 판정기준은 충분</p> <p>○ 쌍방 당국이 인정한 발급기관이 있는 만큼 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p> <p>○ 통일부 고시의 경과규정(북한측 민경련 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인정)은 합의서 위반</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p>○ 좌 동</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0</p> <p>제1차 남북청 산결제실무협 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청산결제 시행문제 협의</p> <p>○ 수석대표 : 김응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신용한도는 10% 수준, 이자율은 2%, 대상품목은 (안)을 교환하여 검토 후 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p>○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p>○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함.</p> <p>○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p> <p>○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 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이밖에 은행 업 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0</p> <p>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통행문제와 통신연결문제 협의</p> <p>○ 수석대표 : 임영록(재경부 경제협력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의 내용〉</p> <p>○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 인원의 체포·구금·압수·구색 금지 및 위법행위시 강제송환원칙 보장</p> <p>○ 우리측 지역에서 개성공단까지는 우리측의 통신업자가 직접연결하고 개성공단에서 북측 지역은 개성전화국을 거쳐 연결</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보도문 내용</p> <p>○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하기로 함.</p> <p>○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함</p> <p>-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정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p> <p>○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3</p> <p>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지점의 남북관리구역에 양측이 각각 1개씩의 경비초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여 서명·교환
<p>2003. 12. 24</p> <p>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보호상에게 보내는 서한문</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환경계획(UNEP)회의 북측 대표단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차원의 환경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환경계획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이 2004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됨. ○ 귀하를 비롯한 귀측 대표단을 정중히 초청함하니 긍정적 호응을 기대함.
<p>2003. 12. 27</p> <p>군사정전위 및 중립국 감독위 대표단 만찬</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세현 통일부장관, 북한 변화 유도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게 살길을 마련해주고 변화를 유도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방법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3</p> <p>제9차 남북군 사실무회담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교환</p> <p>○ 좌 동</p>
<p>2003. 12. 27</p> <p>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북·중, 핵문제 평화적 해결 공감</p> <p>○ 중국 외교부 왕의 부부장 등 방북(12.25~27)시 쌍방 은 제2차 6자회담이 대화과정을 제승성 있게 전진시 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계속해나 갈 용의를 표명하였음.</p>

한 국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29</p> <p>「한적」 총재 대북전통문</p>	<p style="text-align: center;">금강산면회소 계획 설계 통보 및 측량·지질조사 실무협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타결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추진에 따른 실무문제 합의에 따라 2개의 면회소 계획설계안을 통보하니 빠른 시일내 귀측 의견을 알려주기 바람. ○ 측량 및 지질조사 문제 협의를 위한 쌍방 실무자간 접촉을 2004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p>2003. 12. 30</p> <p>통일부 보도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2003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에 개최된 남북회담은 장관급회담 4회 등 총 38회로 106일에 걸쳐 개최되어 월 평균 3회, 1년중 1/3기간 동안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치분야 3회, 군사분야 7회, 경제분야 15회, 인도·체육분야 6회 등 총 31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음.
<p>2003. 12. 30</p> <p>남북직통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총회, 고구려 고분 세계유산 등재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6월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총회에서 귀측 고구려고분의 세계유산 등재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바, 남북간의 협력은 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 ○ 우리측은 귀측이 협력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임.

북 한	
출 처	제 의 내 용
<p>2003. 12. 30</p> <p>노동신문</p>	<p style="text-align: center;">반미반전투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은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지만 미제의 군사적 소동은 의연 계속되었으며 한해동안 나라의 정세는 전쟁국면으로 치달았음.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의 수호자, 자주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신심높이 반미반전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임.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6 卷
〈2001.7~2003.12〉

2004年 10月 2日 發行

發行處：統一部 南北會談事務局

〈非 賣 品〉

